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 가운데 홀로 높임 받으시며 우리를 하여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4년 8월 10일 (토) 제 1979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페널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운동선수들의 신앙고백 대중 앞에서 대담하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주는 모델

올림픽 개막식은 국가의 영광과 세계적 통합을 화려하게 기념하는 행사이다. 하지만 이번 주 개막식과 경기를 보면, 하나의 독특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운동선수들이 항상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올림픽 선발전을 보았다면, 같은 패턴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모든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명확한 기독교적 표현을 사용했다. 마치 경쟁의 하나로 누가 더 많은 찬사를 하늘로 돌리는지 겨루는 듯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육상 스타 시드니 맥러플린-레브론이 이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본다. 여자 400미터 허들에서 세계 기록을 다시 경신한 후, 그녀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세계 신기록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저 놀랐고, 어리둥절하며, 충격적입니다." 기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음 참가자에게로 넘어갔다.



문화에서 '허용되는' 공적 신앙의 마지막 피난처로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은 맥러플린-레브론과 같은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는 운동선수들을 비판하지 않는다. 이걸 허용된다. 기자들은 이를 기이하거나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운동선수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행위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다. 설령 처벌받더라도 그들은 개의치 않을 것이다. 믿음이 폄하되거나 무시되거나 사생활로 전락하는 시대에, 운동선수들은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한다. 왜 그럴까? 혹자의 생각에, 시작점은 스포츠 자체의 본질에 있다. 운동 규율은 엄격히 통제되지만, 휘슬이 울리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혼돈, 우연, 그리고 가능성의 연속이다. 하늘은 비구름으로 가득 차고, 코트는 표면으로 미끄럽고, 트랙은 스피

지 같고, 상대는 전략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신체이다.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신체를 별개의 존재처럼 다룬다. 그것을 돌보고, 치료하고, 먹이고, 쉬게 하고, 신뢰하고, 비난한다. 넘어지고 비틀거리거나 부상을 당한 운동선수는 '내 몸을 나를 배신했다'고 말한다. 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인대가 언제 끊어질지, 근육 경련이 언제 일어날지 절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2014년 NBA 파이널 1차전에서 당시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였던 르브론 제임스는 경련으로 인해 경기장을 일찍 떠나야 했다. 이유는 경기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했기 때문이다. 그는 경기하는 곳마다 얼음처럼 차가운 에어컨 온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유명

했고, 팬들은 상대 팀인 혹자가 사랑하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경쟁 우위를 위해 경기장을 따뜻하게 유지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사실이든 아니든 스퍼스는 경기와 시리즈에서 모두 승리했는데, 그 이유는 리그 MVP가 근육 경련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만이 주권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날씨를 제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제어하실 수 있다. 나는 내 몸이 실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다. 바람과 파도조차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마태복음 8:27). 축구공과 소프트 공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
(3면으로 계속)



메타모더니즘 이해하기

영화, 음악, TV, 캠퍼스 시위, 밈 문화, 그리고 틱톡과 같은 현대 대중 문화를 볼 때 "일관성 없음"이라는 말이 자주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왜 그토록 많은 것이 무작위적이고, 단절되고, 모순되게 보일까? 왜 하나같이 목적과 일관성 있는 논리는 측면에서 볼 때 공허하게만 느껴질까? 그 답을 소셜 미디어에서 하나 찾을 수 있다. 소셜 미디어 고유의 변성된 무작위성이 정신 분석적 문화 의식을 강력하게 형성했다. 우리는 스크롤을 통해 제공되는 소식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무작위로 하나씩, 일시적이며 빠르게 잊어버리는 이야기, 가벼운 즐거움과 가끔은 울림을 제공하지만, 거기에 결코 지속적 만족을 제공하는 고정된 내러티브는 없다. 한병철이 서사의 위기에서 말했듯이, 디지털

플랫폼은 "서사가 아닌 정보 미디어를 제공한다. ... 사건으로부터 의미를 파생시키는 일관성은 이제 무의미한 나란히 side-by-side와 연속의 연속 one-after-the-other로 바뀌었다."
찰스 테일러의 "교차 압력" 개념도 이런 상황 설명에 도움을 준다. 현대인은 정보, 아이디어, 경험, 친밀감, 영적 탐구에 의해서 사랑에서 포격을 받고 있으며, 이 모두가 그들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긴다. 당연히, 교차 압력을 받는 삶의 경험(그리고 그로 인한 예술적 표현)은 어지럽고, 갈등하고, 일관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학자, 예술가, 비평가의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메타모더니즘 metamodern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9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목회단상 한인철 목사



푸른초장 피종진 목사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편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i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Silver Mission of New York

"가둔지 보내둔지 하자!"

2024년 가을 제38기 뉴욕실버선교학교

2024. 8. 26(월)~10. 28(월) 10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아래와 같이 제 38기 훈련을 갖습니다

개강일시 2024년 8월 26일(월) 저녁 6시 30분(식사) / 7시 30분 강의

장소 롱아일랜드성결교회 [이상원 목사 담임]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Tel. [516]333-1757

강사 선교관련 저명한 강사

대상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 등록비 \$100

특전 선교지 파송 사역가능, 수료증 발급

등록문의 김재열 목사 917-963-9356 [훈련원장]
이형근 장로 646-220-8222 [사무총장]

김재열 목사 뉴욕 실버미션 회장 센트럴교회 담임

이상원 목사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

NY SILVER MISSION

단기선교 : 2024. 11.4~9일 [장소: 온두라스]
의료, 한방, 이미용, 안경, 사진, VBS(어린이 사역)
"1개월 이상 선교지 방문하는 분에게 항공료 보조함"

뉴욕실버미션

(516) 387-9940 | smofny@gmail.com

회장 김재열 목사
훈련원장 김경열 목사

시론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올림픽과 교회

제33회 하계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7월 26일 - 8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유럽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은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선수촌에 에어컨 시스템이 없다!!

에어콘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 70미터의 지하수를 사용하여 자연냉각을 하고 있으며 실내온도가 바깥보다 6도가 낮습니다.

일회용품이 없다!!

대회 기간 내내 일회용품들이 사라집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컵 대신에 재사용이 가능한 컵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 과일이 없다!!

조직위에서는 이번에 사용되는 식재료들을 가능한 프랑스 안에서 생산되는 것들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프랑스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운반과정에 '탄소발자국'이 남을 뿐만 아니라 아보카도 자체가 재배과정에서 엄청난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자원 보호'라는 면에서도 수입이 제한된 것입니다.

경기장 건설을 최소화하다!!

이번 올림픽 개최비는 지난 도쿄올림픽의 1/4(25%) 수준으로 대략 88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영역을 넘어 기존 경기장을 재사용함으로써 환경과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행사를 치르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교회와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관리하도록 맡겨 주신 지구촌! 이제는 지구촌을 넘어 우주공간을 향하여 그 영역을 넓혀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피조세계의 관리와 보호를 교회 밖의 일로만 생각하던 신앙인의 생각을 바꾸어 교회도 환경보호와 관리에 더 민감한 모습으로, 예컨대 1회용 사용품을 조금이라도 줄여가는 모습을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며, 샬롬.

hankschoi@gmail.com

자유주의 신학자, 그녀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에타 린네만(1926-2009)의 놀라운 간증

중요한 인물이 비교적 쉽게 잊히는 최근 역사에서 에타 린네만에 대해 들 어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그녀의 이야기는 기억할 만하다. 1950년대에 유명한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1884-1976)의 학생이었던 그녀는 성경과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과 같은 사건에 대한 볼트만의 회의주의를 물려받았다. 그리고 독일 대학에서 회의적 시각을 가르쳤다. 하지만 1970년대 중년에 들어선 그녀는 불신앙의 유산을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30년 동안 성경의 진리와 복음 메시지를 가르치고 선포했다. 그녀는 독일, 스칸디나비아, 인도네시아, 미국 및 여러 지역에서 교회와 학교를 찾아 강연했다. 그녀의 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읽히고 있다. 그녀의 신앙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녀의 삶에서 회의의 단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자.



지나갔고, 그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때의 신앙은 그만 여물기도 전에 사산된 거 같다. 몇 달 후, 그녀는 독일 마르부르크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거기서 예수의 부활이 역사의 사실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공유한 생각일 뿐이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신학 교육 전체의 기초를 결정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배웠다.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기껏해야 입을 때 하나님을 조금 느끼도록 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전 반적으로 말해서, 린네만은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읽을 때 그건 결코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배웠다"라고 회상했다. 학생으로서의 근면함과 학자로서의 재능을 가진 린네만은 (볼트만, 게르하르트 에벨링, 에른스트 푸흐스 등의) 교수를 따라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의 리더십 자리에 오른 많은 대학생에게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성경과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학자의 일원이 되었다. 그녀는 신약 학자로서 남성이 주도하는 길드에서 여성이 쓴 연구물로는 최초로 비평적 찬사를 받은 작품을 저술하기도 했다.

에 스며드는 회의주의를 발견했다. 그녀는 "주님께서 내가 진짜 복음을 듣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회상한다. 그 일은 향후 몇 년에 걸쳐 걸로만 바서는 실로 믿기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일어났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린네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판적인 견해뿐 아니라 대학생에게 기렸던 악영향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고 고백했다. 어느 날 논문을 평가하는 중에 그녀는 아프리카 교회에서 일어난, 매우 잘 입증된 기적에 관한 보고를 접했다. 그녀는 이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했고, 학생들은 대학 교수가 기적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 중 적어도 일부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믿는 신학 교수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일테니까.

불신앙으로의 순례길

북부 독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린네만은 가끔 교회에 다녔다. 그녀는 어린 시절 루터교 교회 청소년 그룹에서 젊은 부목사의 가르침을 기억하는데, 그건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는 바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한다. 십 대 초반,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시기에 그녀가 만난 목사는 그녀의 말에 따르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고, 따라서 내가 배운 것은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녀는 복음서를 단지 "예수님에 관한 여러 다른 전기 모음집"으로만 여겼다. 그녀가 배운 것은 지속적인 효과가 없었다.

전쟁 후 그녀는 삶의 의미를 찾아 열흘 간의 수양회에 참석했다. 예정된 강사가 독감으로 못 왔고, 막판에 대체 강사로 온 사람은 다행히 더 나은 사람이었다. 린네만의 말에 따르면, 그는 좀 특별한 점이 있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다. 지금, 나는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 당시만 해도 나는 거듭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목사는 우리가 죄인이고 구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감히 선포했다. 스무 명 정도의 학생 중 예닐곱 명이 거기에 동의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회심과 함께 기쁨에 찬 하루가

비평에서 그리스도로

학생들에게 성경에 대한 불신을 가르치면서, 린네만은 자신의 회의주의

를 관철했다. 그중 많은 기도가 눈에 띄게 응답받았다. 린네만은 거기에 매료되었다. 그런 다음 한 달 후, 한 강사가 학생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사람이 여기에 있나요?"라고 물었다. 린네만은 회상하기를, 그녀의 첫 반응은 "아, 이젠 나에게 맞지 않아. (12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패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약)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담임목사 청빙 공고
연합교회는 4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체 교회로서, 주력가에 300명이 예배 할 수 있는 본당과, 미국 본들의 예배실, 교육관, 도서실, 유아실, 체육관 등을 두루 갖춘 다문화 교회로, Fort Campbell 군부대와, 또한 가까이 근접해 있는 네쉬빌, 한국 유명 기업인, 한국 타이어, LG 전자, 신촌 글로벌, 한국 엔 컴퍼니, 동화 일렉트로라 등..

은혜의 빛 장로교회 담임목회자 청빙
북가주의 Martinez 시에 위치한 은혜의 빛 장로교회 (KPCA 교단)에서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신실하신 목회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퍼즐 게임을 통해 목회를 배우다

한 달 전 즈음에 “함께 세워 가는 교회”라는 에베소서 말씀 설교했다. 우리들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각자 흩어진 존재들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이 구원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서, 건뿔마다 서로 연결하

여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한 몸이요, 한 공동체임을 설교했다. 마지막 예를 들어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지만 수백 개의 작은 퍼즐 조각들이 서로 각자의 위치에 붙어 있을 때, 한 쪽의 은혜로운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루는 퍼즐게임처럼 우리 모두가 자기 위치를 잘 지켜서 땀땀 같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고 힘차게 설교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교우 한 분이 목사님 생신 축하해요! 작은 것이지만 퍼즐 설교가 생각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오후 늦게 서야 생소한 기대감으로 퍼즐 박스를 개봉했다. 비닐봉지에 담긴 퍼즐 조각을 꺼내고 바닥에 있을 구성지침서를 찾았으나 아무런 설

명서가 없었다. 쏟아부은 500피스 퍼즐들이 수북한 모습을 보니 마치 어린 시절 뒷마당에 무작위로 쌓아놓은 장작더미를 보는 듯했다. 박스에 부착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한 아기 예수와 부모들, 목자와 동방박사들과 양과 소와 말 그림을 한동안 쳐다보면서 조립해 널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몇 가지 조립 아이디어를 정해 봤다.

우선 박스 그림을 참고로 비슷한 색깔 조각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무작위로 맞춰 보기 시작했다. 이건 완전히 무대책이 대책이었다. 서울의 김서방 찾기보다 더 난감했다. 소 발에 쥐 잡는 게임이었다. 장님 문고리 잡기였다. 여짜다가 두 조각이 한 퍼즐로 들어맞을 때 작은 쾌감이 나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짝이 있구나! 이 옆 조각은 어디에 있을까? 손톱만 한... 뽀뽀이 흩어진 조각들을 주목하면서 눈에 헤드라이트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몇 개 맞추지 못했는데 벌써 취침 시간이 훌쩍 지나 버렸다. 목사의 휴일 월요일엔 조

반 후에 온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퍼즐 맞추기에 전념하고 말았다. ‘야! 이거 작은 퍼즐이 나를 포로하고 있네!’ 속으로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 하루 2시간 이상은 소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이 7월 중순인데 12월 성탄절까지 완성이 될까 싶지 않아 보였다. 그래도 그렇게 결심하고 언제 끝날 줄 모르는 퍼즐 게임에 전투가 시작되었다. 하루 이틀 한두 주일이 속히 지나가 버렸다. 잠념은 사라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는 날이 여러 날이 흘렀다. 유튜브 보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퍼즐에만 붙어 있었다.

하루하루 조립하고 구성하면서 함께 지워져 가는 교회의 원리와 퍼즐 맞추는 원리가 흡사한 것을 발견했다.

우선 유사한 색깔대로 분류했다. 비슷한 나이별로 기초 조각을 세운다. 2) 유사해 보이는 블록들을 계속 상하좌우 거꾸로 바르게 맞춰 보았다. 처음 조직된 구성원들끼리 서로 만남과 교제를 시도하도록 했다. 3) 어느 정도 퍼즐 블록

이 커지면 큰 블록과 매칭을 시도했다. 연합 구역 교제를 통해서 세대 통합 교제를 시도한다. 4) 제 눈에 안경처럼 자연스럽게 조립하지 못하고 조금 무리하게 끼어 맞춰 놓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난다. 긴가민가한 교우들은 끝까지 뽀뽀를 부리는 현장과 흡사했다. 5) 아무리 작고 특징이 없어 보여도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영원한 미완성이 된다. 온몸 공동체에 한 사람이라도 함께 하지 않으면 온몸이 온전하지 못하는 영적 지체와 그대로 답았다. 6)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는 반드시 완성의 날이 온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반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50%밖에 조립이 되지 않고 남은 퍼즐처럼... 평생을 선거운 목회 현장이 언제나 미완성 같은 현실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세워져 완성되는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남은 목회의 블록들을 맞춰 나가야 하겠다. 지금도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있으니...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피종진 목사

(재미재단법인) 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총재



모든 산자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전도서 9:4)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 있는 존재(A Living being)임을 최고의 가치로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릇이 부족하여 많이 담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가난하고 병들고 슬프고 괴롭고 버림받았다고 단정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언약(Covenant with God)에 신실한 것이라고 인정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보물을 정탐하고 탐지할 때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온갖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넓고 많은 것을 탐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선민들이 발견하기를 원하셔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힌 열두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민수기 14:8)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엄청난 보화들을 탐지하는 만큼 자신의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넓고 높게 탐지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된 열두 정탐꾼이 눈으로 본 것은 같았지만 그들의 생각과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두 사람만 탐지한 만큼 자기 소유가 되었고 열 사람은 하나도 자기 소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두 정탐꾼처럼 여러분 자신이 주역(Protagonist)이 되어서 탐지한 만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한 모퉁이만 정탐하고 온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많

은 것을 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은 한두 사람에게만 좋았던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지파, 온 회중에게 좋았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두 정탐꾼은 넓고 크게 보았으며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긍정적이었습니다. 정탐 후에 좋은 것을 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 두 정탐꾼이 감사함으로 표현한 것과 같이 축복받는

▶ 출애굽기 3:8

하나님께서는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킨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광대하고 넓은 땅으로써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한 계획안에서 인도하 셴지만 열 정탐꾼이 보고 온 결과는 불평과 믿음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God's Chosen People)으로, 인칭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딸이요, 천국의 허락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 지길 축원합니다.

▶ 시편 85:12

사람은 어떠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색상이 달라 보이듯, 우리는 항상 마음의 영안을 뜨고 저 멀리 있는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운행을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치되어야 진정한 축복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또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만난 것을 감사 하고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Temple of the Holy Spirit)이 된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먼저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내가 없게 되면, 심령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내 인생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 새롭고 좋은 길을 열어 주시어 승리함과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시편 103:2-5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셨고 강한 원주만까지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물질도 천국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탐지하면 그대로 채워 주시고 받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 출애굽기 3:8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가나안 족속, 헛 족속, 아모리 족속 등을 하나님께서는 가서 물리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 민수기 14:8-10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려고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행동을 온전히 맡기면 우리의 항해사 역할과 선장과 조종사가 되어주셔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 요한복음 14:1-3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공과 실패(Success and Failure)도 있고 행복과 불행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이고 결국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적이 있어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리라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신 말씀대로 올 한해 탐지한 땅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믿으시고 넓고 많은 것, 아름답고 좋은 것,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역사하고 계심을 탐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소유하며 넉넉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역사하시고 계심을 탐지하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역사하시고 계심을 탐지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What you have prepared)이었으며,

탐지한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민수기 14:6~10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한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해야 하지만 많은 것을 오래도록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노동하고 장막도 짓고, 때로는 율법학자가 되어 가르치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약한 자를 위로해주는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육체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선한 생각을 품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긍휼을 베푸는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의 생각과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르고 탐지한 땅을 받아서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히 아름답고 좋은 것을 탐지하였습니다.

▶ 민수기 14:7-8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은 심히 아름답다고 하였지만, 우리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밝은 얼굴,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소망과 축복이 넘치는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통치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형통하게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나쁜 것은 생각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행하지도 말고, 소 유도 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갈 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믿으시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누가복음 11:13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중에서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감수성의 왜곡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온라인 유튜브 방송 설교, 영상예배의 시대가 열렸다. 인터넷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론의 반영이라기 보다는 '신앙의 감수성'에 대한 왜곡이 그 실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공감능력을 통하여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교회를 홍보할 수 있고, 설교자를 드러낼 수 있고, 교회가 힘 있는 권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결코 영상예배가 일상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며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상예배에 익숙하게 되면, 엔터테인먼트 기술에 의해 영적 감각이 둔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미래 시대에 교회 강단에 실제 목사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때를 생각해 보라. 단순한 동영상이 아니라, AI 설교자와 퀄리티 좋은 데이

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인터넷 교회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이름도 이곳저곳에 팬리를 따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될 것이다. 몸을 움직여,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림이 마땅하다. 특히 신앙의 편리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코로나 시기에 영상예배를 드렸음을 핑계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의 핏값이 찾아왔을 때, 저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무덤에서도 예배를 드렸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맞닿은 곳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가운데는 제주도 극동 방송국에서 쏘아 올리는 단파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예배를 드린다. 북한에 예수 믿는 이들 가운데는 밤이 되면 산에 올라가 땅을 파고 숨겨둔 선대의 성경책과 찬송가를 꺼내어 돌려

음을 말한다. 성도가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모이기를 힘쓰도록 해야 한다.

성도가 예배를 위해 교회앞으로 나아가고, 힘써 예배드림으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마침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도 공급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참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역자는 당연히 성도들을 예배의 처소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성도는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장소로 몸을 가지고 나아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가 자신의 영혼과 가정과 가문, 자손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

고 예배를 사랑할 때,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정한시간 정한장소의 예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몸을 드러 예배하는 분명한 구별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우기지 않는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굳이 주일에만 예배해야 하느냐고, 어리석게 항변하지도 않는다.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다. 마음과 생각이, 정신과 영혼이 아무리 배안에 있어도, 방주의 문이 닫히면 배 밖의 사람은 죽게된다. 가정의 가족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가족이 만나지 못하고 늘 흩어져 산다고 가정해 보자. 아마도 가족이 아니라 노숙자의 모임이 되거나, 나중에는 이름뿐인 그 가정은 해체되고 말 것이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그저 건축물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텍사스에서 목회하는 1.5세 목회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난처한 부탁은 간혹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교인들이 자신의 치유를 위해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심방하여 병든 교인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여 니으리라는 확신이 솔직히 적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적으로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텍사스에서 Sam 목사

치유

A: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교회 목회를 하면 교인들 중에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를 부탁할 때가 많습니다. 암환자도 많고 교인들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그들의 병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환자 심방을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가 많습니다. 교인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 부탁할 때는 피하지 말고 과거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담대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치유의 은사가 없기에 기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병자를 고치기 위해 굳이 치유 은사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영 분별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영 분별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음악가가 아니라고 악기를 다루지 말아야 하거나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내 아내가 요리사가 아니라고 요리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치유의 은사가 없다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의 약속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요즘의 목회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 5:14-16)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His promise)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니키 검블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인생의 의문점"이라는 책에서 이런 경험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일본인 소녀가 자기와 아내에게 자신이 아픈데 아픔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손을 얹고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녀를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왜 치유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설명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골목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나는 피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두려운 질문을 했다. 자매님은 등은 좀 어떤지요? 그녀가 대답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후로 완전히 나아갔어요. 그때 나는 매우 놀라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저 역시 40년 이상의 이민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자신의 아픈 병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면 기도해 주고는 그 후 어떤가를 묻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접할 기회가 있어 이제 좀 어떠냐고 물으면 "목사님이 그때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 후로 아픔이 사라지고 깨끗이 나아갔어요"하는 고백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오늘날도 하나님은 치유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우리가 과거 사도들처럼 치유의 은사는 없다 하더라도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날도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치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자를 감싸고 약한자를 강하게 하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사역의 70%를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신유를 행하셨습니다. 둘째, 치유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 치유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할 때 담대하게 약속을 붙잡고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보고 듣게 되었다. 실패한 예배 비유해서 동냥짓을 얻는 행위자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어 버렸다. 해치우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결과, 성도들의 삶에 많은 폐해가 나타났다.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다. 가나안 성도들처럼 온전한 신앙생활이 잘 되지 못한다. 어디서나 예배하고 누구에게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무한한 자유라고 말하지만, 실은 먹는 음식에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영상예배, 인터넷 교회, 실패한 예배

-영적 감성의 타락, 신앙의 편리주의-

터에 의한 영상이 강단을 장식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쩔한 생각이 든다. 실제보다 훨씬 더 극적인 화면을 보는 것이 가능해져서, 강단이 쇼 프로그램의 무대가 될 수도 있다. 실제 대형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영향력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겠는가? 아마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앞서서, 좋은 기술 PD를 영입한 교회가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더 좋은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만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가 곧 부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실상이 아니고 가상일 따름인데, 가상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정말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상예배, 인터넷 교회

영상예배의 흥왕은 온라인 예배의 르네상스를 가져온 것 같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연세가 드신 어르신부터 어린 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유튜브 동영상 통해 일상생활과 정보를 얻고, 이제는 예배까지 이를 통해서 드린다고 하니, 과연 이 흐름의 대체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된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로컬 교회와 예배를 폐하는 일

앞아 소리죽이며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참되고 진실한 예배이다. 이들에게는 교회라는 장소도, 예배의 형식도 없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의 참 예배를 드린 것이다.

교회가 없지만, 생명을 건 이들의 예배에 큰 은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예배의 행태는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드러지는 한계가 있는 예배이다. 일반화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지금처럼 밝은 광명의 세상에서 마음껏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드러지 않음은 게으름에 불과한 것이다. 게으른 것을 성경은 악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악하고 게으름의 결과는 그저 주님의 엄한 책망밖에는 없다. 마음과 정성만 있으면 되지, 굳이 몸이 갈 필요가 있느냐고 핑계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복된 신앙생활은 기준이 분명하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내 몸을 가지고 가서 예배드린다."는 사상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모이지 않는 예배와 교회

교회의 본질은 예배다. 교회가 반듯하게 서 있어 보여도 예배가 없거나 희미하면 무너진 상태와 다를 바가 없다. 예배가 없다면, 교회는 곧 무너져 내린다. 예배가 없으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이상 성도들이 교회로 나아가 예배로 모이지 않

로요 도구임을 아는 그 믿음이 없다. 그 결과 예배와 교회를 세워가지 못함으로 피폐해진 자신의 삶도 일으켜 세우지 못하게 되었다.

몸이 교회로 오는 예배

몸이 교회로 오는 것이 예배이다. 몸이 교회로 오는 것이 진짜 예배, 참 예배이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손과 발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 예전에 믿음 좋은 분들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버선을 두 개 호수머리에 넣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고서는, 그 버선을 갈아 신고 집으로 오셨다. 그런 분들이 집 안에 계시는 때, 그가 걸리는 교회나 그 가정과 가문, 자녀들 가운데 복이 넘었던 것을 본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설교가 흥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왜 그런 간증들이 없는 것일까? 시대의 악함도 문제겠지만, 몸을 가지고 교회로 오지 않으니, 예배가 무너졌으니, 삶에도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버려진 듯 살게 되는 것이다.

나는 건물 지상주의자가 아니다. 교회 건물도 얼마든지 부수고 허물고 더 좋게 지을 수도 있는 도구에 불과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건물 자체를 신성하게 여기는 것은 미신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곳은 거룩한 구별의 장소가 된다. 교회를 사랑하

며 교회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이들이 많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면, 자신들이 교회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는 사람을 오히려 '건물 지상주의자'처럼 취급하며 '율법주의' 혹은 '구약 중시론자'로 평가절하하는 것을 본다. 이것은 말슴대로의 삶이 아닌 마음대로의 삶이며,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악한 소견일 따름이다.

예배와 교회, 실패한 예배자

세상은 편리해지는 것을 성장과 발전이라고 한다. 그 발전의 열매로 이제는 컴퓨터를 대신해서,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클릭하는 최첨단 시대를 살게 되었다. 편리함의 전성시대를 구가한다. 교회 생활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왔다. 웬만한 것은 전화기 카톡방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 교회의 심방, 광고, 공문, 심지어 노회의 회의까지도 전화를 통해 처리한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를 경험하면서, 더욱 편리함에 노출이 된 것이다.

편리함을 찾는 현대인의 모습들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예전에는 주일성수를 묵숨처럼 생각하며 주일을 지켰다. 그러나 오늘날 자신의 편리를 먼저 따지며 '꼭 교회를 가야만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않느냐?'라는 이상한 사상들도 많이

davidnjeon@yahoo.com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다음 주일에 만나요!

우리 가족이 한국에 방문하는 동안 미국도 폭염으로...

주말이 되었다. 서울 중심에 숙소를 예약하여 여유 있게...

해 준 성도님들 각 가정의 선물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일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소풍이 되었다.

은 교회에 가야해서 가게 문을 닫아요. 일요일에 문 닫는 가게는 여기 남대문에서 저쪽에 없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듣자 마음속으로 '아이고... 정말 다행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왔다.

것이다.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뵙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기분 좋게 헤어졌다.

아이들과 사택으로 걸어가는데, 교회 주차장을 나가시는 한 성도님이 차 창문을 내려 외치신다.

“Ms, Hannah! Welcome Home again! See you next Sunday!!”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기도 사역에 동진 프랑스 교회 “올림픽, 복음 전할 좋은 기회”

프랑스 교회가 전 세계의 스포츠 행사인 '2024 파리올림픽' 기간을 지렛대 삼아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복음 전파에 팔을 걷어붙였다.



오케스트라처럼 함께 연주한다는 의미를 담은 '러브 프랑스' 캠페인을 위한 글로벌 중보기도 네트워크(International Prayer Connect-IPC)와 협력 사역을 하고 있다.

글로벌에 따르면 프랑스 복음주의계에서는 올림픽 기간 효과적인 전도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구글은 독점회사”...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 패소

구글이 검색 시장과 관련 광고 시장을 독점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정부가 대형 테크 기업을 상대로 벌인 반독점법 소송에서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 "구글이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하는 건 독점을 금지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법무부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 등에 대해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서 구글 검색을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해 경쟁 업체 진입을 억제했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구글은 사용자가 기본 검색 엔진을 손쉽게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자들은 구글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글 검색을 사용하고, 이를 위해 계속 투자해 왔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현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 기업의 권력에 타격을 주고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구글이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 머니의 종말'... 美증시 패닉, 2년 만에 최대 낙폭

공포 심리가 미국 뉴욕 주식시장을 강타하며 3대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 미국 경제 둔화 우려 충격으로 흔들린 글로벌 주식 시장 여파가 다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친 모양새다.



구글이 낸 돈은 다른 경쟁업체가 (검색)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구글이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광고 시장에서도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사용자 기본 검색 엔진을 손쉽게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자들은 구글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글 검색을 사용하고, 이를 위해 계속 투자해 왔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 머니의 종말'... 美증시 패닉, 2년 만에 최대 낙폭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33.99포인트(2.6%) 내린 3만8703.27에 장을 마쳤다.

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33.99포인트(2.6%) 내린 3만8703.27에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0.23포인트(3.0%) 내린 5186.3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6.08포인트(3.43%) 내린 1만6200.08에 장을 마쳤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2022년 9월 13일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세 지수는 오전 한때 각각 3.11%, 4.25%, 4.52%까지 급락했다가 오후 낙폭 일부가 만회됐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다. 공포지수로 알려진 변동성 지수 VIX는 이날 전 거래일(23.39포인트)보다 181%(65.73포인트) 폭등하며 장을 시작했다가 66.48%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퍼진 과도한 공포를 우려하면서도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침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꼭 올려야만 했냐”... 주가 폭락에 일본은행 비난 쇄도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일본은행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 결정에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나오는 모양새다. 일본은행 출신인 아타고 노부야스 라쿠텐증권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5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행은 경제 지표와 시장에 대해 겸손해야 한다"며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했다는 것은 통계자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주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제 및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과 일치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되는 한 금리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는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 결정에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린 직후인 지난 5일 니케이종합지수는 12% 넘게 폭락했다. 코스피, 나스닥, S&P500 등 주요 지수도 일제히 큰 하락세를 보였다.

'인구감소' 중국, 반려동물 찾는 가구는 급증

중국 반려동물 수가 올해 처음 4세 미만 영유아 수를 앞지르고 2030년에는 2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골드만삭스의 발레리 저우 등 애널리스트들은 지난달 말 보고서에서 중국의 가임기 여성이 감소하는 가운데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풍조가 확산하면서 반려동물 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쓰촨성 청두의 30세 여성 로라 루오는 "반려동물이 증가하는 추세는 사회의 원자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려동물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보다 더 저렴하고 덜 어렵다"고 말했다.

사료 산업만 놓고 보면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연평균 8%씩 증가해 120억 달러(약 16조 5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예상했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96. 김성원(1880-1920)

김성원은 1880년에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나 장광동에서 거주했다. 24세가 되던 1904년에 하와이 노동 이민을 꿈꾸고 독신으로 하와이 노동 이민 선 아메리카 마루에 승선하여 그해 10월 1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로마 알파벳으로 Sung Won Kim 또는 S.W. Kim으로 소개했다.



롬복 한인 장로교회

하와이에서 노동 조건을 이행한 김성원은 1906년 초에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였다. 석탄광 주신인 황사용이 1906년 3월 12일 자 신한민보에 낸 다음과 같은 광고를 읽었다: "락스프링 석탄파는 일... 일군은 몇 천명이라도 쓰기를 원하는데 숙식도 편리하고 일도 매우 좋은 고로... 한인 3, 40명이 모였으며, 매일 공간이 3달러 80센트이요, 도급을 맡아서 하면 매일 2, 3달러를 더 벌며, 이 일은 한인 이 주관하는 일이고, 절도비는 삼분의 이를 감하여 주고, 돈이 없는 이는 노비를 선당하여 지급하오니 이 일을 원하는 이는 상향 공립회관의 이재수 씨를 찾아 문의하십시오." 김성원은 와이오밍 락스프링으로 이동하였다.

김성원을 비롯하여 김형근, 이응순, 유홍서, 김우보, 김우성, 조화실, 남희일, 최화삼, 박병원, 송기현이었다. 대항제 폐하와 2천만 동포와 공립협회를 위하여 각각 만세 삼호를 한 후 폐하하였다. 이날 김성원은 이응두와 함께 애국가 위원으로 수고하였고, 최삼목이 수석위원으로 봉사했다.

락스프링에 한인 동포가 모여 사는 캠프가 따로 있었다. 이 캠프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인촌을 신한촌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석탄광 주신인이었던 황사용이 교인이었고, 얼마 후 미국 남감리교 순회 전도사가 되었는데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락스프링 한인교회다. 한인 동포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면 김성원도 예배에 참석했을 것이다.

롬복 한인 장로교회

석탄 채굴에서 한인 동포가 중상을 당하고 생명까지 잃는 가운데 김성원은 1910년에 락스프링을 떠났다. 김성이가 1909년 7월에 여관을 설치하고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 주선을 한 중가주 롬복으로 이주하였다. 김성원이 롬복으로 이주한 그해 5월에 김진하, 백군삼, 이윤옥과 함께 롬복 대한인 국민회 롬복 지방회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그해 7월에 동명인인 김성원이 동성동명이 있다면서 자신의 이름을 김성원에서 김성만으로 행세하오니 조량하시라는 개명 광고가 있었다.

다음 달 김성원은 한운서, 이인화, 안중권, 김성오, 임달순, 김창학, 우도영, 박운서, 김성일, 장봉석, 이능백, 강국보, 김성삼, 김만수, 김두호, 최주희,

손동선, 김수룡, 한창옥, 장덕우, 손기보, 박영화, 박동은, 김석준 등 롬복 동포와 함께 "신한민보가 없다면 골동포의 혈액이 끊어짐이라"고, 신한민보사에 1달러를 후원하였다. 그때 김성원은 한운서와 함께 병중에 있으면서도 후원의 손길을 뻗었다. 다음 달에 롬복 한인 노동자 손기보, 김성오, 손동선, 김창학, 정국현, 임달순, 장덕우, 한창옥, 박병원, 최주희 등 9명과 함께 두 번째로 신한민보에 1달러를 후원하였다. 후원과 함께 조국의 자유독립을 소망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동봉하여 김성원 등의 조국사랑을 엿보게 한다: "경계자는 우리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신한민보의 배고픈 말을 듣고 어찌 우리가 못 듣는 체하고 있으리오. 대저, 허끝으로 나오는 열성은 마치 양철 그릇에 물 끓는 것같이 서... 곧 식어버리자마는 마음속으로 나오는 열성은 전기와 같아서 비벌수록 열기를 더 발하니 혹자 본 지방의 연조가 빈번한 것을 염려하였으나, 아니라, 이 무슨 말이뇨. 넓고 넓은 저들에 푸르고 푸른 무밭은 우리 신한민보를 구급할 약재가 정녕하고, 높고 높은 저 언덕에 울창한 수목은 우리의 독립권을 기르는 양식이 분명하니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염려할 바 없으리오. 우리의 주머니 속에 쟁쟁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하루 세 때 먹기를 굶기 전에는 신한민보 너도 또한 굶지 않을지라. 조금도 낙심 말고 소리를 크게 하여 앞으로 저벅저벅 빨리 걸어 태산준령 어서 넘어 자유복지 인도하라."

1913년경에 롬복에서 2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김성오의 캠프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김성원뿐만 아니라 위에 소개한 신한민보에 후원한 대부분 동포가 모인 가운데 장로교 순회 전도사였던 민찬호가 예배를 인도했을 것 같다. 미국 북장로교 가주 중앙인 선교사 라플린 목사는 그해 5월에 개최한 미국 북장로교 내지 선교회에서 "가까운 미래에" 한인 장로교회가 세워질 것으로 보고했다. 그 후 라플린 목사는 민찬호 순회 전도사를 롬복에 파송하였다. 1914년 4월에 세례식이 롬복 제일장로교회에서 있었다. 그날에 서DW 부인, 김성일, 강WC, 황CO, 장덕우가 세례를 받았고, 김EH의 아들 앤드루가 유아세례를 받았다. 이후 롬복 한인 장로교회는 5년간 계속되었다.

스타톤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

신한민보는 1910년 11월 30일의 '스타톤 동포의 발전'이라는 기사에서 한인들이 스타톤 인근 곳곳에 농장을 세우고, 한인의 농업근거지를 삼아 장래영업을 크게 하는데 각 처에 자본 있는 동포가 날로 모였고, '전도 희망이 적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상향 한인 감리교회 목사가 허구 선교사였던 이대위 목사나 미국 남감리교 태평양

연회 내 동양 선교부 소속 황사용 순회 전도사가 스타톤을 가끔 방문하였을 것이다. 1914년에 스타톤에 미국 남감리교 한인 기도처가 조직되었고, 김성원이 스타톤 한인 기도처 평신도 대표가 되었으므로 이대위 목사나 황사용 순회 전도사가 방문하지 않았을 때 김성원이 중심이 되어 예배를 인도했을 것이다.

상향 옥 스트리트 1053번지에 있던 상향 한인 감리교회에서 1915년 6월 26일 토요일에 제1차 한인교회 지방연회가 개최되었다. 스타톤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인 김성원을 비롯하여 허구 선교사인 이대위 목사, 황사용 전도사, 상향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인 황사선과 강영승, 삭도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인 김찬일과 이응목, 마운틴뷰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인 김원택과 허섭, 오클랜드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인 김필권과 임준기가 참석했다. 이대위 목사가 개최 예배를 간단하게 인도한 후 임준기를 서기로 선출하고 회무에 들어갔다. 먼저 북가주 한인교회 사역에 관한 보고가 있고 난 뒤 제반 문제를 의논하였다. 특별히 스타톤 한인 감리교회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 스타톤 한인 감리교회는 지역 전도사나 권사가 없었으므로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는 지방 전도사에게 비용을 충분히 지급하여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스타톤 한인 감리교회를 방문하고, 한 달에 적어도 두 번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였다.

1915년 태평양 연회 동양 선교부는 황사용을 작년에 이어 새크라멘토 시찰회 순회 전도사로 파송하였다. 그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스타톤 한인 감리교회를 방문하고, 한 달에 적어도 두 번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김성원은 본 교회 평신도 대표이자 권사로 파송받아 순회 전도사가 방문하지 못한 주일에는 예배를 인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황사용 순회 전도사는 김성원에게 와이오밍 신한촌 광산지의 지인이자 신한촌 교회 지도자였으므로 두 사람 모두 스타톤 한인 감리교회를 상당히 하고 있게 섬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해 스타톤 한인 감리교회에는 8명의 세례교인과 6명의 학습 교인이 있었다.

스타톤에서 15마일 떨어진 중가주 맨티카 인근 지역 12곳에서 여러 동포가 무이사당수수 농장을 단독으로 경작하거나 동업하였는데 크게는 300에 이르는 농장을 가진 자도 있었다. 김성원은 1916년에 맨티카에서 무이사당수수 농장 10에이커를 단독으로 경작하였다. 그러나 중도에 폐지하는 바람에 크게 손해를 보았다. 그래서인지 다뉴바와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북가주 트레이시로 이주한 김성원은 우체국 사서함을 열고, 서양 음식점 '런치 카운터'를 운영했다. 혼자서 영업하면서 힘든 가운데 1918년 5월에 신한민보에 매물로 내놓았다. "양찬관 사시오"라는 타이틀 아래 다음과 같이 광고했다: "

나 김성원의 풀밭에는 그 안에 '런치 카운터'가 있고, '빠빠'가 있고, '시'가 스타'가 있고, '이 런치 카운터'를 우리 동포 신달을 씨가 한 1년 하다가 너무 일에 골몰하여 그만두신 후로 저 혼자 이사하는데, 이 자리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백인들이 다들 사겠다 하나 좋은 영업 자리를 팔 맘이 없어 아니 팔고, 뜻이 있으시면 제게로 문의하십시오. 같은 값이면 동포에게 팔겠습니다. 모든 '디쉬'와 '팬'은 있고, 자분은 없어도 시작할 수 있으시니 사실 타이먼 사시고, 동업하시든지, 또 여기서 일을 하시던 지원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김봉화 씨와 흥정식 씨를 원합니다. 만일 속히 원하는 이가 없으면 외국인에게 팔겠습니다." 식당을 힘들게 운영하던 가운데서도 그는 그해 8월에 국민회에 의무금을 냈고, 그해 11월에 북가주 트레이스에서 150마일 이상 떨어진 남가주 다뉴바에 사는 김석길의 병원비로 50센트를 후원하였다.

김성원은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했다. 1918년 11월에 자신에게 빛진 자에게 빛을 갚아달라는 광고를 신한민보에 냈다: 채무자와 채무액은 다음과 같았다. 조동오 55원, 임대운 10달러 55전, 조하운 9달러 5전, 오대도 8달러 35전, 양순진 11달러 50전, 박성칠 20달러, 최성달라 5달러, 신봉서 2달러 65전, 인흥구 6달러, 이상석 3달러 50전, 임병수 3달러 50전, 김경함 1달러 45전, 박연 1달러 75전. 그리고 이상 여러분은 자신이 거주하는 샌프란시스코 허위스 블루바드 410번지로 보내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그런데 석 달 후인 1919년 1월 16일에 김성원은 자신에게 빛진 자에게 빛을 갚아달라는 광고를 두 번째 신한민보에 냈다. 채무자와 채무액은 대체로 같았으나 모 씨 47달러 70전이 추가되었다.

다른 한편 빛을 갚아달라는 첫 번째 광고한 그해 12월에 무보수 평신도 한인 선교사였던 이경의의 장례비로 얼마를 기부하였고, 두 번째 광고를 내던 그해 1월에 신한민보 식자 기구 구매를 위한 제38회 동맹자 모집에 그의 이름을 올렸고, 그해 2월에는 국민회에 특별 의연을 하였고, 그해 6월에는 독립의연을 했다.

김성원은 1920년 초에 병이 나서 샌프란시스코 공립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신한민보에 세 번째 게재했다: "본인이 신병으로 상향 공립병원에 들어와 벌써 월 여를 고생으로 지나는 중수중에 돈푼이나 있어야 하겠으나 본인에게 값을 시험하고자 있는 여러분은 다 좀 속히 그 돈을 국민회 지방총회 안 최진하 씨에게로 부송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원한 김성원은 불행하게도 1920년 3월 23일에 40세의 일기로 상향 공립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에게서 무보수 평신도 독신 사역자의 애환을 엿보게 된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안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891, www.thanksgiv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평일)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p> <p>lbfqusa@yahoo.com / www.lbfq.com Tel: (323)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단교회</p> <p>담임목사: 김홍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6:00(월-금)</p> <p>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정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평일 기도: 오전 2:00 영양 (잠소:KDC, 김명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동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세례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714)719-2244, www.dk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미주양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310)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례기도: (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pcas.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626)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예배: 오전 9:15, 11:30 영양예배: 오전 1:30(수-금),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iblehall.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세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세계선교회</p> <p>담임목사: 김창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213) 388-1927 / www.wmca.com / worldmissionchurch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8</p>
<p>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Fe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6:30</p> <p>Tel: (310)749-4756 실비치 리저런스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목요일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지역원</p> <p>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총무)</p> <p>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고령 장년노년 여성자 3. 목회상담 4. 가정사역자 5. 알콜사역 6. 네트워킹사역</p> <p>Tel: (213)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영양예배: 오후 7:30(수-금), 8:00(토) 세례예배: 오후 6:00(월-토)</p> <p>Tel: (714)446-6202, www.graecim.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 오후 7:20(토)</p> <p>Tel: (310)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c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을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양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수-목요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례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목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org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W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목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세례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c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평강교회</p> <p>담임목사: 송금란</p> <p>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 기도: 오후 11:00 TEE-동요문신(주일): 오전 9:30 화요 3.3기도회: 매일동행주 9:20-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TEE-성경말씀(수-금): 오후 7:30 세례기도(토): 오전 6:00</p> <p>Tel: 213-383-9136, pyongg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칼빈의 경건생활 (The Piety of John Calvin)

I. 칼빈이 생각했던 경건

(7) 신명기 5장 16절의 설교

이미 언급한 것처럼 고대 역사에서 이교도들은 경건(pietas)이라는 단어를 아버지, 어머니, 우리를 돌보며 다스리는 모든 권위 있는 자들에게 적용했다. pietas는 적절히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다. 이교도들은 영적인 소경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섬김 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의 순종의 태도를 시험해보시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알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 행정장관, 기타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그의 인격을 대표한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조소하고 거부한다면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다름없다. 칼빈이 '경건'이란 용어를 사용했을 때, 그것은 원래의 사회적 의미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한 차원 높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복종, 헌신 등의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종교개혁자 칼빈도 경건에 관한 그런 전통적인 개념을 알고 있었다. 그는 신명기 설교 중에서 "그래서 이교도들은 '경건'이라는 용어를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우리가 영예를 돌리는 것에도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적절하게 말해서,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하는 경외입니다..."라고 말한다.

(8) 「요한복음주석」

이 책에서 칼빈은 이방인의 경건과 기독교인의 경건의 관계에 대해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는 pietas의 단어가 온 세상에 퍼져 있으나 무엇보다도 철학자들과 세속작가들의 손을 통해 탁월한 경건이 작품들 속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시인한다.

(9) 「사도행전주석」 17:28

바울은 "우리가 그를 함입어 삼켜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라는 시인 아라투스의 말을 인용한다. 방방한 자들과 진정한 경건을 멸시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아라투스의 말은 인간의 마음에 새겨놓은 지식을 고백하는 증거라고 표현한다.

(10) 「복음서의 조화에 관하여」(공관복음주석)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7절 주석

칼빈이 생각한 경건(pietas)에는 외면적인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공관복음주석에서 칼빈은 안식일에 어떤 형태의 노동은 허용되었다고 말한다. 그 노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계된 일로서 이른 바 경건의 직무들

인데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라고 번역될 수 있다. 같은 단락에서 칼빈은 경건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위선적인 내용을 제시하면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표적들을 사용하여 경건을 유지하면서 실상은 욕을 숭배하는 일에 집착함으로써 경건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위선자들"에 관하여 언급한다.

(11) 일률적으로 경건(pietas)으로 번역된 신약의 단어는 '유세이아(euseia)'이다.

이 단어는 목회서신과 공동서신에 독점적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는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한번 사용되었다. 서신서에 15회 나타나는 이 단어를 RSV는 세 번을 경건(godliness)으로 번역했다. 70인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지고 있는 의무 곧 경건, 거룩함, 종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된다.

2) 칼빈의 삶에 있어서의 경건

칼빈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킨 어떤 특정한 성경구절이 있다는 뚜렷한 정보가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로마서 1장 18-25절의 내용이 칼빈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부분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특히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이라고 짐작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칼빈이 말하는 경건의 중심 주제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주제들은 「시편주석」서문에 있는 그의 개종에 대한 설명과 칼빈의 「사들레트 추기경에게 보내는 답변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고백에 관한 글에 나타난다.

3) 코페르니쿠스적 혁명과 같은 칼빈의 경건

칼빈의 경건은 그 이전의 중세기적인 의미에서의 경건과는 매우 다르다. 그래서 장 까디에는 "칼빈이 경건의 영역에서 이루었던 혁명을 동시대에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에서 했던 혁명과 비교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 장 까디에는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사람들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천문학자는 정반대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주에 대한 모든 개념이 바뀌어졌다. 그와 마찬가지로, 칼빈은 경건에서, 그것의 습관적인 중심이었던 사람과 그리고 사람의 필요나 성과들을 들추어내고, 그 자리에다 경건의 진정한

중심인 하나님을 다시 모셨다." 까디에가 주목한 것은 바로 칼빈의 경건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성격이었다. 중세에는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었고, 주체였으며, 그 인간의 요구나 필요, 종교적 성취에 따라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중심의 종교, 인간중심의 경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칼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세계의 중심이고, 그분만이 홀로 주인이며, 사람들은 그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과 종교, 그리고 그에 따른 경건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종교상의 대전환이었다는 시각이다.

중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구원은 인간의 종교적 수련이나 영성, 자선, 선행 등 행위를 그 조건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자들의 종교적 수행 등 이른바 '공로'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이나 선조들의 구원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거기서는 구원을 인간이 공로로써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내며, 그 결과 구원의 객체인 인간이 오히려 주체로 인식되기까지 하는 오류가 발생했던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의 경건은 참된 의미를 가지기가 어렵다. 실제로 중세기적인 의미에서의 경건은 그런 잘못된 관념으로 인해 의미를 잃고 말았다. 바로 그것을 마르틴 루터가 10년여 동안의 고통스러운 수도원생활을 통해 체득하고, 깨달았던 것이 아닌가? 이것이 또한 '경건'이란 단어 대신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야 할 이유 중의 하나이다.

칼빈은 중세기적인 종교관행과 경건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기독교강요」를 비롯한 그의 여러 저술들 속에서 분명하게 밝혔다. 그럼으로써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구원의 전제가 되는 인간의 종교적 행위나 실천이 아닌 새로운 의미에서, 즉 복음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경건을 세워놓았다. 그가 세운 경건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써 가능한 경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경건함으로써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경건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경건에 선행하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경건사상이 수립된 것이다. 그래서 경건은 칼빈에게서 인간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younsuklee@hotmail.com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일상칼럼

관계운전

지난주에 옷장 옷걸이대 한쪽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떨어진 옷걸이대를 살펴보니 합판에 작은 스테이플이 잔뜩 박혀 있었다. 그렇게 허술하게 붙여 놓았으니 약할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안 입는 옷들을 정리할 기회가 되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생각이 많았다. 여유가 있으면 이 참에 새롭게 옷장을 주문해서 들여놓으면 깔끔하기는 하겠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일단 라이선스가 있는 핸드 맨은 아니지만 한 번씩 소소한 고칠 것을 손 봐주는 아저씨에게 연락을 했다. 그분은 베트남에서 열여섯 살에 동생과 함께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온 보트 피플이다. 미국으로 올 때 배에 탄 옛날 사진을 나에게 보여 주었는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배를 탄 사람들의 사진이 감동이었다. 그야말로 입은 옷 한 벌만 지닌 채 미국에 도착했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은 분이다. 처음에 우리 집에 와서 잔 일을 하고는 너무 적게 수리비를 달라고 해서 고맙고 안쓰러운 마음에 조금 더 드렸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99센트 스토어도 갖고 있고 큰 집에 살고 있어서 나보다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구나 하고 속으로 웃었다. 이런 저런 대화를 통해 신앙 얘기를 꺼내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저씨가 몇 년 전에 딸이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얘기와 아내와의 관계가 어렵다는 말을 했었다.

오랜만에 만난 것이어서 딸은 좀 나아졌는지 물었더니 본인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털어놓았다. 자기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먹고 살만하고 건강도 좋고 다 갖추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 이유는 아내와의 갈등 때문이다. 미국으로 온 후 고등학교에서 만난 아내였다. 아내의 강한 성격과 사회성의 결여로 자녀들, 자신도 힘들고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지켜보려고 인내하고 살지만, 너무 불행하다는 하소연이다.

독불장군 같은 아내의 강한 때문에 입을 열면 다툼이 시작되어서 본인의 입을 닫고 살기로 했다고 한다. 밥도 따로 먹고, 방도 따로 쓰고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사는 것이다. 옷장을 고치러 왔다가 답답한 마음을 한참 털어놓고는 잠시 푹푹푹푹 못질을 하더니 옷걸이를 다시 잘 붙여 놓았다. 알아서 달라는 수리비를 지불한 후 그냥 보내려니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함께 기도를 하자고 했다. 기도 후에 눈을 뜨니 기도를 안 한 것인지 셀폰을 가지고 사진을 찾고 있었다. 결혼사진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았다. 마냥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결혼사진 아래 부분에는 "하나님 안에서"라고 써 있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결혼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등장한 것이었을까? 그렇게 사랑에 가득 찼던 표정의 두 사람이 이제는 찬바람 부는 가정생활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가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에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아내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라 할지라도 아내의 장점을 바라보며 사랑을 표현하라는 내 말은 별 도움이 안되는 뜬구름 잡는 소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부부사이가 무너져 내린 우리집 옷걸이대처럼 튼튼하지 않은 합판 같은 관계라면 이제라도 재료를 보강해서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닐까?

부부관계를 포함해서 나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모든 관계에서 먼저 나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 그래서인지 요즈음에는 MBTI 라는 성격유형 검사가 유행이고 젊은이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유형의 성격을 지닌 사람인지를 많이 언급한다. 물론 한 사람이 지닌 다양한 성격을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규정 짓는다는 것은 무리지만 그래도 스스로를 파악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이민 가정과 교회 안에서 겪는 관계의 어려움과 아픔은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는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신 성육신의 모델, 겸손에 기초한 관계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본다.

lpyun@apu.edu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and Hawaii.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그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줄 믿지만 정말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뉴저지로 이사 가신

정총자 집사님께서 이곳에 계시실 때 간중입니다. 어느날 저녁 성도들과 성경공부를 마치고 가려는데 정총자 집사님께서 “목사님 저 간중 잠깐 해도 될까

요?”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성경공부하려고 Artesia 길로 오다가 갑자기 운전석 아래 타이어가 빠져서 중앙선 너머로 굴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모두 박수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 가운데서 능동자같이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

시18:2에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 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고 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지난 7월13일 미동부시간으로 오후6:10경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연설하는 트럼프를 향해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트럼프는 총성 직후 목뒤를 만지며 발연대 밀로 급히 몸을 숨겼고 경호원들이 연단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총격범은 비밀경호국 요원에 의해 바로 사살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살아난 것을 기적이라고 의사들은 표현했습니다. 그는 총격범의 총알을 맞기 직전에 잠시 이민정책에 대한 차트를 보려고 고개를 살짝 돌린 그 순간 총알이 날아왔...

를 살짝 돌린 그 순간 총알이 날아와 트럼프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그대로 연설했다면 머리 후두부로 총알이 관통되어 즉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총알이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5일 후인 7월 18일 저녁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모인 공화당전당대회에서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십시오”라는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연설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암살범의 총알이 6.35mm 차이로 내 목숨을 앗아가지 못했다. 나는 그 순간 화면에 올라온 이민관련 차트를 보고자 오른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

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대에 설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시 91:14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며 주님과 동행하면 불행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종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온갖 불행과 온갖 위협에서 반드시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songpkak@hotmail.com

‘개신교 관점에서 바라본 레퀴엠’ 컨퍼런스 열려

라크마 음악감독이자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장 윤임상 목사의 ‘개신교 관점에서 바라본 레퀴엠에 대한 이해’ 컨퍼런스가 8월1일(목) 오전 11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통해 레퀴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개신교의 관점에서 레퀴엠은 장송곡 혹은 진혼곡, 그리고 카톨릭스러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마치

곡자들은 모차르트, 베틀리오즈, 베르디, 포레, 튀플레, 브리튼, 브람스 등이 있다”고 설명한 뒤 “특별히 브람스는 바흐와 같이 루터교회 신자였으며 당시 많은 작곡자들이 곡을 쓸

을 많이 받았으며 당대 최고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던 슈만에게 천재 작곡가가 될 것이라는 극찬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브람스가 레퀴엠을 쓰게 된 계



윤임상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브람스의 레퀴엠의 특징은 레퀴엠의 관습을 벗어나고 유한한 삶을 사는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질문하며 슬픔과 희망을 심어준 것”

에서 열렸다. 이날 컨퍼런스는 오는 18일(주일) 저녁 월드미션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2024 라크마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열리게 된 것이다.

이날 윤임상 목사는 “브람스의 레퀴엠 공연을 앞두고 레퀴엠에 대한 교계의 이해가 왜곡된 점이 있다”며 “컨퍼런스를

레퀴엠을 죽은 자의 혼을 위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실 레퀴엠은 ‘영원한 안식(eternal rest)’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죽은 자를 위로하는 것으로 비워졌기에 불편함을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레퀴엠을 만든 작

곡자들은 모차르트, 베틀리오즈, 베르디, 포레, 튀플레, 브리튼, 브람스 등이 있다”고 설명한 뒤 “특별히 브람스는 바흐와 같이 루터교회 신자였으며 당시 많은 작곡자들이 곡을 쓸

정적 계기는 그의 어머니의 죽음이였다. 1867년 1-3악장을 완성하고 초연을 했다. 그리고 1868년 5악장을 제외한 나머지 악장을 완성하고 굿프라이데이 때 성공적 연주를 했고 69년에 모든 5악장을 완성하면서 총 7악장의 곡을 완성했다. 브람스의 레퀴엠의 특징은 레퀴엠의

관습을 벗어나고 유한한 삶을 사는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며 슬픔과 희망을 심어준 것”이라 말했다. 윤 목사는 “레퀴엠은 교회의 음악이며 개신교회에서도 충분히 연주할 수 있는 곡이다. 다만 예배음악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곡을 잘 변별하여서 사용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4 라크마 정기연주회는 ‘Friendship & Harmony’는 브람스의 레퀴엠 공연 외에 한인, 백인, 유대인, 알미니안, 영국 등 커뮤니티에서 모인 70여명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회를 갖는다. 자세한 것은 (323)413-9698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메타모더니즘 이해하기

(1면에서 계속)

모든 그리스도인과 특히 교회 지도자라면, 이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특히 대중문화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아는 게 사명 완수에 도움을 줄 것이다.

메타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메타모더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에 나온 것이고,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에 나온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반응하며 해체한다면, 메타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반응하며, 그것들이 가진 측면을 긍정하는 동시에 비판한다. 메타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진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식의 양분적 성격을 반대한다. 메타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경우) 성실함/확실함/희망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경우) 아이러니/해체주의/허무주의 사이에서의 선택도 거부한다. 메타모더니즘은 모두를, 즉 통합을 중시한다. 비록 결국에는 비논리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말이다. 어쩌면 바로 그 이유 때문인지도 모른다. 메타모더니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엄격한 논리가 아니다. 대신 분위기와 느낌(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공감하는 게 무엇인지)이다. 그렇기에 일관성 없음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게 “도량 치고 가재 잡는 소리”로 들린다면, 당신은 지금 거의 요점에 근접했다. 인터넷(무수한 “진리”로 구성된 구조적 다중우주)이 제공하는 끝없이 수준의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라는 지평을 따라서 형성된 메타모더니즘은 스마트폰 만능이나 활짝 열려 있고 소비자 친화적인 세계

관이다. 원하면 들어오고 아니면 나가면 된다. 팔로우하거나 팔로우를 취소하면 된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화면을 맘대로 바꾸면 된다. 여기는 당신만의 iWorld이다. 그러니까 더 맘에 드는 iWorld를 만들면 된다.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아이디어 사이를 마구 전환하는 메타모더니즘의 초소비주의자, 이를 가리키는 학문적 용어는 “진폭 oscillation”이다. 메타모던적 전망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양극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 그 결과 메타모던의 진짜 위치는 결코 고정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초개인주의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모든 사람이 예외없이 주어진 순간에 해체와 구성, 진실과 상대주의 사이를 여러 번 오갈 수 있다. 어느 한 방향으로의 “올인”을 피하겠다는 조심스러운 태도, 그러나 메타모더니즘의 성격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다.

여기 메타모더니즘을 설명한 글이 하나 있다.

메타모더니즘에 따르면 우리 시대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두 측면 사이의 진폭을 특징으로 한다. 메타모더니즘은 일종의 정보에 입각한 순진함, 실용적 이상주의, 온건한 광신주의, 그리고 진실함과 아이러니, 해체와 구성, 무관심과 감정 사이를 오가며 일종의 초월적인 위치를 얻으려는 시도로 자신을 드러낸다. 마치 그 모든 게 우리 손안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 메타모더니즘 세대는 아이러니하면서도 동시에 진실할 수 있다는 말을 이해한다. 하나가 반드시 다른 하나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다. 아이러니와 진실함 사이를 오가는 마지막 진폭은 현대 대중문화를 살펴볼 때 특히 두드러진다.

영화 속 메타모더니즘

영화 속 메타모더니즘에 대해 내가 본 최고의 분석은 미디어 평론가 토마스 플라이트가 등장하는 비디오 에세이이다. 40분 분량으로 꽤 길지만, 메타모더니즘의 인식적 개념이 현대 영화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배우고 싶다면 시간을 낼 가치가 충분하다.

플라이트는 Top Gun: Maverick을 최근 “모더니스트” 영화의 예로 강조하고, (필트 픽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포스트모더니즘” 영화의 일련의 예로 제시한다. “메타모던” 영화의 예로는 오스카상을 수상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2022), 쿠엔틴 타란티노의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2019), 스티븐 스피버그의 The Fabelmans(2022) 및 웨스 앤더슨의 영화 대부분을 들고 있다. 이 영화들은 포스트모던적 성찰성(영화적 기교에 대한 자기인식을 강조한 영화)과 현실적이고 냉소적인 감정적 만남에 대한 진심 어린 고찰, 내러티브 낙관주의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의심, 그리고 “할리우드적 결말” 가능성에 대한 논리적인 열망을 특징으로 한다.

최근 영화 사례

메타모더니즘을 이해하면 영화와 TV 어디에서나 만난다. 다음은 작년에 나온 ‘메타모던 영화’의 몇 가지 예이다.

1. The Fall Guy (2024)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한 이 액션 블록버스터는 메타모더니즘의 전형을 보여준다. ‘영화 속 영화’라는 줄거리는 호주 영화 세트장에서 스텐트맨(고슬링)이 현실의 위험과 현실의 로맨스에 얽히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상대역은 에밀리 블런트인데, 그녀는 이 영화의 감독을 맡았다). 이 영화는 포스트모던적인 성찰과

할리우드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지시적 농담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러다보니 할리우드의 기교를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중심 로맨스는 달콤하고 진실하다. 따라서 진지하고 솔직한 사랑에 대한 관객의 향수와 갈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스포일러 주의) 해피 엔딩에서 고슬링은 “우리가 얻은 것은 영화보다 훨씬 낫다”고 말한다. 결말은 진지하면서도 아이러니하며, “할리우드식 결말”의 유치함을 장난스럽게 인정하면서도 관객에게 그러한 결말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갈망하도록 만든다.

2. Love at First Sight (2023)

이 넷플릭스 로맨틱 코미디는 지난 가을 큰 인기를 끌었다. 아이러니하지만 진실한 로맨스에 대한 메타모던적인 접근 방식을 구현했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런던행 비행기에서 만나 사랑에 빠지는 젊은 여성과 청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TV 영화 수준의 줄거리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식상하지만, 누구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 그게 핵심이기도 하다. 제는 러브 스토리가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하는 메타현대적 관객의 입맛에도 맞을 만큼 이 영화는 자기 인식에서 뛰어나다. 누구나 아는 영화적 포스트모던 신조는 특정 캐릭터가 정기적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관객에게 웅크리는 방식으로 직접 말을 걸 때 더욱 강화된다. 하지만 이걸 아이러니한 초현실 속에서 진심이 가득하고 감정적 감동이 느껴지는 실제 순간이 산재해 있다.

메타모더니즘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메타모더니즘이 문화와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글이 필요하다. 후속

글에서 이 질문을 다시 다루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명백한 인식적 개념과 관련해서,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라는 질문에 대한 두 가지 간략한 설명만을 다루겠다. 하나는 우려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다.

1. 논리에 대한 혐오와 ‘일관성 없음에 적응하기’

닐 포스트먼은 1985년에 낸 Amusing Ourselves to Death에서 텔레비전이 우리의 논리적 능력을 잠식하는 방식을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관성 없음에 적응할 것이다”라는 말을 썼다. 그 표현이 오랫동안 나를 떠나지 않았다. 소셜 미디어 시대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메타모더니즘이 실제로 반영하는 포인트이다.

메타모더니스트들은 일관성 없음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일관성 있고 없고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내부 모순으로 가득 찬 예술, 정치, 철학, 행동주의를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최근 대학 캠퍼스에서 널리 퍼져 있는 “꺼어난 지하드”라는 비논리적인 현상을 설명한다. 카피레를 입은 힙스터들은 거부장제를 비난하고 LGBTQ+ 평등을 장려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거부장적이고 가장 반LGBT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과 연대를 선언한다.

이것은 모순된 사생활 사이를 오가는 메타모더니즘의 진동에서 비롯된 우리의 불일치에 적응한 문화가 드러내는 수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절대적인 진리와 상대주의를 정말로 동시에 믿을 수 있는가?). 여기서 만나는 가장 큰 과제는 많은 메타모던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비논리적인 견해가 지적되어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모순된 입장이 내포하는 내부 불일치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기

독교 목회자, 교회 지도자, 복음전도자, 변경자에게 새로운 도전 을 제기한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모순 속에서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으로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그들을 제자화할 수 있을까?

2. 의미와 확실성에 대한 진정한 욕구

메타모더니즘은 근본적으로 주관적이다. 따라서 거기에 주관성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대주의는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 나 자신과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감정,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거기에 모더니즘의 확실성과 낙관주의가 주는 매력 없음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일관성 있고 없고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최근 대학 캠퍼스에서 널리 퍼져 있는 “꺼어난 지하드”라는 비논리적인 현상을 설명한다. 카피레를 입은 힙스터들은 거부장제를 비난하고 LGBTQ+ 평등을 장려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거부장적이고 가장 반LGBT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과 연대를 선언한다. 이것은 모순된 사생활 사이를 오가는 메타모더니즘의 진동에서 비롯된 우리의 불일치에 적응한 문화가 드러내는 수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절대적인 진리와 상대주의를 정말로 동시에 믿을 수 있는가?). 여기서 만나는 가장 큰 과제는 많은 메타모던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비논리적인 견해가 지적되어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모순된 입장이 내포하는 내부 불일치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기

by Brett McCracken, TGC

남가주주님의교회 UMC에서 엑소도스

주님처치(Joonim Church) 세우고 예배시작

연합감리교회(UMC)의 친동생에 정적으로 인한 갈등으로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들이 증가하고 남가주의 한인교회들도 교단을 떠나는 가운데 로렌 하이츠에 위치한 남가주주님의교회 역시 UMC 엑소도스에 동참했다.

남가주주님의교회 최현규 담임목사와 교인들은 UMC를 탈퇴하고 주님처치(Joonim Church)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해, 6월23일 첫 주일 예배를 라하브라에 있는 Sonora High School에서 10시30분에 드렸으며 7월7일부터는 유튜브방송으로도 예배를 함께 드렸다. 또한 출애굽 특별새벽기도회를 6월24일부터 시작했으며 7월19일부터 21일까지 한동수 목사(대전 천성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하여 '회복과 승리의 길'이라는 주제로 여름부흥성회를 가졌다. 최현규 주님처치 담임목사는 "UMC 가주태평양연회가 지난 5월에 열린 연회에서 타교회로 담임 목사 파송이 논의되었으며 6월에 파송결정 과정을 보면서 더 이상 UMC에 남을 이유가 없어졌음을 저와 남가주주님의교회 교인들이 갖게 되었다"며 "새 예배장소인 소노라고등학교에 와보니 마치 저희들을 맞이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UMC 가주태평양연회(감독 도티 에스코베도-프랭크)가 지난 5월 목회자들에게 대한 담임목회지 파송을 결정했으며, 6월에 갖은 연회에서 목회자들을 새로운 교회로 파송을 결정했다. 그런 가운데 남가주주님의교회는 최현규 담임목사를

다른 지역 교회로 파송을 했으며 이 교회에는 정치영 목사가 파송되었다. 남가주주님의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결정이 연회가 절차를 무시하고 내린 결정이라 판단하고 UMC교단을 떠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남가주주님의교회는 UMC 총회가 친동생으로 교단정적을 전환이 될 때쯤부터 갈등을 빚어왔으며 최근 최현규 담임목사의 타교회 파송이 결정되자 UMC를 탈퇴하고 주님처치를 시작하게 되었다. 최 목사는 "새로운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지냈는지를 알게 되었다"며 "특별새벽기도회와 예배를 통해 출애굽의 의미를 저희 교회에 적용하여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님Church는 우리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라는 의미로 주님처치로 교회이름을 짓게 되었다"라며 "남가주주님의교회를 떠나면서 동성애라는 비성경적인 사상을 쫓아가는 교회에 맞서는 의인으로 비춰지기 보다는 조금 더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겸손하게 믿음을 지켜 나가는 교회,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님처치의 예배장소는 주일예배는 소노라고등학교(401 S Palm St, La Habra, CA 91748), 새벽예배는 1415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이다.

▲ 문의: (626)901-9191

(박준호 기자)



살롬장애인선교회 제21회 온라인 음악회에서 아르모니아 싱어즈가 공연하고 있다

살롬장애인선교회 제21회 온라인 음악회 열어

"사랑의 휠체어 및 생명의 양식 보내기"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주최한 제21회 연례 콘서트 "사랑의 휠체어 및 생명의 양식 보내기" 온라인 음악회가 4일(주일) 오후 7시 유튜브에서 열렸다.

박모세 목사는 "저희 살롬선교회는 지난 6월 창립 25주년을 맞이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다"며 "하나님의 은혜와 후원으로 지구촌 25개국 13만여명의 장애인과 한센인 등 소외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올해에도 13개국에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운동과 생명의 양식 보내기 운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금년에도 수천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기도한다"며 "이번 콘서트에 출연해준 모든 출연자들과 제작에 함께해준 분들께 감사드리며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박모세 목사의 부인인 박성칠 사모는 "어려운 때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다. 그리고 저희 선교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는 선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는 아르모니아 싱어즈가 '예수 사랑하심은', '달고 요묘한 그 말씀', 소프라노 신선미가 '은혜 아니면', 보컬리스트 배주은이 'Oh My Own', '충만'을 불렀으며, 피아니스트 제갈소망이 '오 신실하신 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피아노 트리오(안정희, 김정아, 김원선)가 '고향의 봄'을 연주하며 아름답고 은혜로운 음악회로 진행됐다. 이날 음악회는 박모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SV 선교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SV 선교회 정기총회 회장 최영치 목사 연임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의 공동체"

실리콘밸리선교회(회장 최영치 목사)는 지난 7월 18일(목) 산호세 중앙교회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회장 최영치 목사는 "혹독한 코비드 전염병의 여파로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교단을 초월한 목사님들과 예배를 드리고 회원간의 영적교제와 진복을 나눌 수 있게 하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고 회고하고 "특별히 예배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산호세 중앙교회(담임 김진석 목사)에 감사를 드리며 실리콘밸리 선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총무 남중대 집사는 경과보고에서 어려운 가운데

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실리콘밸리선교회가 잘 운영되어 왔고 제21차 회계년도의 임원과 각부의 부장은 공천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유임하게 되었음을 발표했다.

실리콘밸리선교회는 북가주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사역을 통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선교회로 매월 셋째 목요일 오전 11시에 캠프에 위치한 산호세 중앙교회(1870 S.Winchester Blvd. Campbell, CA 95008)에서 선교사역을 위한 예배와 교양강좌 모임을 갖고 있다. 자세한 것은 (510)303-8184로 문의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라미라다에서 열린 축하 모임에서 박영선 전 시장(앞줄 우측 4번째)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라크마 '평화와 소망' 콘서트

라크마 합창단(음악감독 윤입상)의 '평화와 소망' 콘서트가 18일(주일) 오후 7시 월드디즈니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70여명의 라크마 합창단, 65명의 라크마심포니오케스트라, 바리톤 로드 길프리, 소프라노 신선미, 테너 오우영이 출연한다.

▲ 문의: (714)446-1000

2024 남가주교계연합 제79주년 8.15 광복절 기념 예배 및 찬양제

2024 남가주교계연합 제79주년 8.15 광복절 기념예배 및 찬양제가 11일(주일) 오후 5시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에서 열린다. 남가주교협(회장 최영복 목사), OC교협(회장 심상은 목사),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집사)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의 강사는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공동대표)이다.

▲ 문의: (714)313-5535, (213)999-1923

충현선교교회 설립 39주년 기념부흥회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원권 목사) 설립 39주년 기념부흥회가 '교회가 소망입니다!'라는 주제로 9일(금)부터 11일(주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부흥집회의 강사는 손경일 목사(산호세 새누리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9일(금) 오후 7시30분, 10일(토) 오전 5시20분, 오후 7시, 11일(주일) 오전 8시, 9시40분, 11시30분, 오후 2시이다. 한편 이번 부흥회 기간 부모와 함께하는 부흥집회가 함께 열린다. 영유아부-초등부 집회 강사는 제시카 최 목사(전 OC 가나안장로교회 주일학교 담당)이며 중고등부 집회 강사는 제임스 김 목사이며 일정은 9일(금) 오후 7시30분, 10일(토) 오후 7시이다.

▲ 문의: (818)549-9191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부흥집회

LA 복음연합감리교회(담임 김호용 목사)가 오는 8일(목)부터 11일(주일)까지 부흥집회를 개최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9:23)라는 본문으로 열리는 이번 부흥회의 강사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지에 350여 개교회회 건축, 16개 병원과 다수의 초·중·고 대학교를 세운 장요나 선교사이며 일정은 8일(목) 저녁 7시, 9일(금)과 10일(토), 새벽 6시, 저녁 7시, 11일(주일) 오전 9시, 11시이다.

▲ 문의: (323) 641-0691



한국어 교사 학술대회에 한 참가자 그룹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25차 한국어 교사 학술대회 부에나팍에서 열려

"한국어, 세계 속 삶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빠르게 확산 돼"

2024년 제25차 한국어 교사 학술대회가 '세계는 왜 K역사?와 한국어를 배우는가?'란 주제로 지난 8월 2일(금) 오전 9시, 부에나팍에 있는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어, 미국내 한국어 교육 확산과 당면 과제의 중요성, 훈민정음 체계와 제자원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신 교재 모델수업 및 모둠토의 등 다양한 선택강의가 제공되었고 종이접기, 노래 교실 등도 마련되었다.

백기환 제 42대 미주한국학교 총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국 땅에서 자랑스럽게 우리 언어인 한국어로 한국어 교사학술대회를 갖는 것은 가

슴이 벅차고 흥분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런 감정은 생기지 않았다. 지금 K-Pop, K-Movie, K-Drama, K-Food 등과 함께 한국어는 세계 속의 삶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이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대중화와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우리 언어와 문화는 인종간의 소통에 날개를 달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변 환경과 여건이 이렇게 갖추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앞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박영선 변호사 신간 출간 축하 모임 가져

전 부에나 팍 시장 박영선(미국 이름 씨니 박) 변호사의 신간 '악플과 양파, 죽어가는 인생 살리기' 출간을 축하하는 모임이 지난 7월 13일(토) 오후5시 남가주 라미라다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열렸다.

박명숙 피아니스트가 특별 출연한 이날 축하 모임에서 박영선 변호사는 부에나 팍 시장이 되기까지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다.

박 변호사는 "선거 때 반대편 악플에 시달리다 말씀 묵상하며 기도에 매달리니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을 주셔서 극적

역전으로 끝난 선거를 되돌아보며 교만하기 쉬운 자신을 하나님이 연단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한인교회 권사이기도 한 박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첫 한인 여성시장을 역임하였고 주류사회와 한인사회를 아우르는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회회 회장, 캘리포니아 주 회계사 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또한 연세대학교에서 영문학 학사 학위, 골드게이트 법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뉴욕 대학교 로스쿨에서 세무법 전문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정리: 박준호 기자)



주님처치 최현규 목사



성공회 가든그로브 교회 정오의 노래 콘서트를 마치고 출연자들이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성공회 가든그로브 교회 정오의 노래 콘서트

성공회 가든그로브 교회(담임 신부 토머스 이)가 비영리법인 '야스마7(YASMA7, 대표 손영아)과 함께 마련하는 정오의 노래 콘서트가 4일(주일) 오후 6시에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피아니스트 장성, 바이올리니스트 최희선, 첼리스트 김원선이 출연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쳤다. 피아니스트 장성은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생각했다"라며 "리스트의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곡이 완성이 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일상생활 속에서

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하루의 삶이지만 그 삶속에서 늘 해왔던 일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바이올리니스트 최희선과 피아니스트 장성이 바람스의 'Scherzo, Woo 2. from F-A-E Sonata'와 베토벤의 Violin Sonata no. 1 in D major, op 12 no.1', 피아니스트 장성이 리스트의 'Liebestraum'과 슈만의 'Wodmung', 그리고 LA양상블이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E-flat Major, Op.1, No.1'을 연주했다.

(박준호 기자)



올림픽 출전 기독교선수, 메달 따도 못 따도 '갓플렉스'

'2024 파리 올림픽' 출전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

"온 몸이 아팠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며 가장 힘들었던 경기였는데(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주시고 붙들 어주셨기에 가능했어요."

2024 파리 올림픽 유도 혼성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확정지며 대한민국 유도 종목 최초 3개 대회 연속 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을 세운 안바울 선수의 신앙고백이다. 안 선수는 단체전 6개 체급 중 남자 73kg 체급 출전할 선수가 없자 해당 체급 선수로 자원했고 자신의 체중보다 7kg이 더 나가는 선수와

동메달 결정전에 나섰다. 정규 경기 시간인 4분을 한참 넘긴 10분 이상을 매트 위에서 사력을 다해 경기에 임했던 그는 체력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에도 상대로부터 지도를 3차례 받아내 대한민국 최초 유도 혼성 단체 메달 획득의 1등 공신이 됐다.

안 선수는 경기를 마친 후 한국올림픽선교회(대표회장 이장균 목사)가 파송한 '2024 파리 올림픽 스포츠선교단' 단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귀국하기 전 선교단원들과 만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며 "이렇

게 만나게 된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하신 일 같다"고 웃었다.

전 세계 206개국에서 1만 700여 명의 선수들이 모여 메달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파리 올림픽이 어느덧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 메달 결정전이 이어지면서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픔도 교차하는 가운데,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기독교선수의 담대한 '갓플렉스(God-flex)' 활약상이 눈길을 끈다. 또 프랑스 파리에 스포츠선교단을 파송해 현지 곳곳을 누비며 선수들을 향한 응원과 기도, 전도를 펼치는 한국교회의 열정도 돋보인다.

생애 처음 출전한 올림픽 무대에서 한국 골프 선수 최초로 톱10에 진입한 김주형(22) 선수는 대회를 마친 뒤 SNS를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김 선수는 "삶에서 성공을 했을 때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언제나 영광을 드리고 싶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면서 "언제나 사람으로서, 골프선수로서 겸손함을 가르쳐주시고 제 길을 인도해주시며, 부담 되고 힘든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회를 남겼다.



다음세대에 복음적 평화통일 비전을

살롬부흥세계선교회 제천시 첫 통일비전 리더십 캠프 열어

5일 정오. 대형 버스와 승합차가 충북 제천의 대원대 캠퍼스로 들어왔다. 전국 교회에서 온 중·고등학생과 대학·청년부 학생들이 내렸다.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은 영어로 '비전'을 했을 때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언제나 영광을 드리고 싶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면서 "언제나 사람으로서, 골프선수로서 겸손함을 가르쳐주시고 제 길을 인도해주시며, 부담 되고 힘든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회를 남겼다.

살롬부흥세계선교회(공동대표 권순웅·김진하 목사)는 이들과 함께 '한반도 통일비전 리더십 캠프'의 첫날을 열었다. 7

일까지 이어지는 캠프는 독일 통일에 이바지한 동·서독 교회들의 복음적 노력과 기도운동을 다음세대에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33도를 웃도는 후퇴지근한 날씨 속에서도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통일 비전'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해 보였다. 전국 11개 교회에서 온 500명 남짓한 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대학 강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오후 1시30분이 되자 무대에 조명이 켜지면서 'GOH 찬양팀'의

찬양이 시작됐다. 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찬양 속으로 빠져들었다. 찬양이 끝나자 선교회 공동대표 김진하 예수사랑교회 목사가 무대에 올랐다.

개회예배 설교자로 나선 김목사는 "돈키호테처럼 복음에 미친 사도바울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1세기 복음을 유럽 전역으로 전했다"면서 "코로나 19 이후 교회에 복음의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복음의 광인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녁 집회 강사로 나선 공동대표 권순웅 주다산교회 목사는 참가자들에게 '통일 비전'을 심었다. 권 목사는 요셉의 삶에서 뽑아낸 '훈련' '꿈과 비전' '큰 그릇' '깨끗한 그릇' '지혜' 등 다섯 가지 키워드를 설명하면서 이를 통일 비전과 연결지었다. 그는 "복음적 평화통일 캠프로 마련된 오늘 이 자리에서 살롬부흥 통일 비전이 다음 세대의 마음에 심기길 소망한다"면서 "통일에 대한 열망을 품고 열방이 남북통일을 돕도록 바라며 통일 비전을 구현해내는 인재가 이 자리에서 나오길 소망하며 기도하자"고 권했다.



여름 휴가철에 불만한 기독교 뮤지컬은?

'세례요한' '천로역정'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관객 찾는다

장마가 끝나고 체감온도 35도가 웃도는 무더운 날씨 속에 휴가철이 시작됐다. 피서지에 즐기는 물놀이 대신 도심 휴가를 누리는 이들을 위한 기독교 뮤지컬 세 편을 추천한다. '천로역정'은 영국의 작가이자 설교자인 존 버니언의 대표작 기독교 고전이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 대학로 명륜아트홀에서 진행되는 뮤지컬 '천로역정'은 필그림 믿음 소망 사랑 등 다양한 캐릭터를 재치있고 입체적으로 표현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뤄가는 원작의 내용을 비기독교인도

공감할 수 있도록 무대에 펼쳐낸다. 재미와 의미를 함께 보여주는 대사과 음악적 완성도 높은 20곡을 통해 100분의 공연 내내 극에 빠져들게 한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 태어난 세례요한은 종교지도자들과 정치권력자들의 부패와 죄를 보며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다. 뮤지컬 '세례요한'은 요한이 고난 앞에서 순교자의 강령의지와 지극히 연약한 인간적인 감정을 동시에 보여준다. 무대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이 만났고 그의 주변에

계셨던 예수님을 관객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음악적 장치를 만들었다. 공연은 90분간 단 3명 만이 출연한다. 세례요한과 헤로디아, 프로테우스는 인간의 죄성과 욕심, 따뜻함을 표현해낸다. 세례요한은 오는 31일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나래홀에서 관람할 수 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의 대표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뮤지컬로 재탄생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베테랑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신인 악마인 윈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서툰한 통의 편지를 담은 책이다.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악마의 흥미진진한 술책과 심리가 잘 묘사돼 있다는 평을 받는다. 또 악마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원수'로, 인간을 '환자'로 부르는 역설을 통해 재미와 교훈을 던진다. 새로운 각도에서 세상을 조망해보자 가족 간의 갈등과 기도에 관한 오해, 인간의 이중성, 헛된 욕망, 남녀의 사랑, 사랑, 웃음, 쾌락, 욕망 등 삶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다. 뮤지컬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나래홀에서 만날 수 있다.



예정통합, 신학교 위기 극복 위해 교단·교직원 머리 맞대

5일 '신학대학교 미래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교단 산하 신학교가 신입생이 줄어들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의식 목사) 총회가 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예정통합 신학대학교미래발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균 목사)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신학대학교 미래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 학생 유치와 개교회 후원 등 지속 가능한 신학교 운영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예정통합 산하 7개 신학교 총장과 이사회를 비롯해 총회·신학교육부 임원 등 70여명이 참석해 교단이 느끼는 위기의식을 방증했다. 예정통합은 3년 전부터 신학교

발전 및 구조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총회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신학대학교로 통합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신학교는 각 학교가 개별적인 자구책을 마련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천병석 부산장신대 총장은 효율성을 위한 신학교 통합을 이전에 지역 신학교가 갖고 있는 사명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총장은 "현재 부울경 지역에 신학교가 하나도 없다. 총회는 신학교의 선교적 의미와 다음세대를 위한 신학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또 "총회가 학교에 대해 논의할 때 신학교 운영이 결국 교육부 소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학교의 요청 사항을 먼저 들

은 뒤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학교마다 진행하고 있는 위기 타개책도 소개됐다. 한홍신 서울장신대 총장은 "올해 우리 대학원은 150명 정원에 100명이 입학했다. 신입생이 뽑히지 않으면 그 재정 피해는 3~4년씩 누적된다"며 "글로벌센터를 세워 외국인 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사용빈도가 적은 건물을 지역 사회를 위해 활용해 지자체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회들의 관심과 재정 지원도 주요 대안으로 논의됐다. 위원장 신영균 목사는 "10월 둘째 주 '신학대학교 주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전국교회가 신학교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또 교회가 세례교인 100명당 신학생 1인을 지원하는 등 신학교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목사는 교단 차원에서 신학교 발전 기금 조성 및 기부운동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궁극적으로는 다음세대가 목회를 회피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목회자 사레비 확보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봤다. 위원회는 이날 나온 의견과 마지막에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오는 10월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자유주의 신학자, 그녀는 어떻게...

(2면에서 계속)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였다고 한다. 하지만 돌아다 보니 그녀는 고백한다. 그게 바로 신학자들의 문제이다. 그들은 자신이 신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감사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 바칠 사람이 있는지를 반복해서 묻는다. 그리고 나는 그 부르심을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 나는 손을 들었고, 주님은 내 마음을 보셨다. 아, 내 삶은 그날로 바뀌었다. 에타 린네만에 대해서 내가 처음 들은 건 1980년대 초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녀의 새로운 삶이 막 시작할 즈음이었다. 당시에 나는 스토클랜드에서 박사 과정 중에 있었다. 동료 학생 중 두 명이 독일인이었고, 그들은 내게 린네만의 회심을 전해주었다. 나는 그녀의 새로운 관점이 반영된 출판물을 접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고 나는 그녀를 직접 만났고, 그녀의 책 세 권을 번역했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판매 중이다. 첫 번째 책은 'Historical Criticism of the Bible: Methodology or

Ideology?'(성경에 대한 역사비평: 방법론인가 이데올로기인가?)'이고, 두 번째는 'Is There a Synoptic Problem? Rethinking the Literary Dependence of the First Three Gospels(공관 문제는 존재하는가? 첫 세 복음서의 문학적 의존성에 대한 재고)'인데, 여기서 그녀는 공관복음서 저자들이 서로를 베껴다는 학계의 합의된 결론에 도전한다. 이어서 그녀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비평적 논문 모음집, 'Biblical Criticism on Trial: How Scientific Is Scientific Theology?(재판정에 선 성서 비평: 과학적 신학은 얼마나 과학적인가?)'를 썼다. 이 중에서 적어도 두 권은 여전히 독일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그녀의 다른 출판물 중에 Q라는 유명한 복음서 출처의 증거를 조사하는 기사가 하나 있다. 그 글과 연관된 웃긴 일화 하나가 린네만의 때로는 직설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그 글을 독일어로 번역한 Biblical Archaeology Review의 유명한 편집자인 허셀 샌크스가 린네만에게 번역물을 보내고는 잡지에

게재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번역을 읽은 린네만은 "이건 번역이 아니야! 이건 위조물이야!"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다. 그 정도에 모욕감을 느낄 샌크스가 아니었다. 마음에 드는 번역가를 직접 찾으라는 샌크스의 말에 린네만은 그렇게 했고, 샌크스는 그 글을 출판했다.

린네만의 유산: 장점과 단점

샌크스와 그의 일화는 린네만이 남긴 유산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린네만은 소통에 있어서 그다지 외교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복음주의 학자들이 서양 성경 연구를 지배하는 '역사-비평 신학'에 맞서는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때때로 이 사명에 대해서 그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복음주의 동료들(특히 독일인)을 불공정하게 대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그녀의 작업을 호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몇 년 전, 나는 공관복음서 문제에 관한 그녀의 다소 과격적인 시선을 담은 저서에 대한 리뷰를 한 적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나는 그

녀가 타당한 요점을 제시했다고 믿었다.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주제에 관해서 그녀는 매우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학계에서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전 복음주의자(exvangelicals)"가 넘치는 시대에, 자신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일반적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린네만의 날카로운 비판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숙연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만은 그녀에 대해서 일부 불만을 품은 복음주의자들도 어느 정도는 긍정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그녀를 형성했고 또 그녀가 가르치기까지 했던 회의주의의 어둠에서 린네만을 끌어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떠올리면 내 마음은 훈훈해진다. 그녀의 서면 간증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3:16을 시작으로 간증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신학자



였지만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물랐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중생이 필요했습니다.

린네만의 이야기는 독특하지 않다. 2011년, 재세레파 메노나이트 성경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메리 세르츠는 자신의 관점에 큰 변화가 생긴 이야기를 발표했다. 그녀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개념"을 거부하던 자리에서 바로 그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서는 자리로 나아갔다고 고백했다. 물론 많은 성경 학자와 신학자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한다. 하지만 국제적인 학자들 사이에서는 진짜 신자

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대학이라는 세계는 진리를 계시하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우호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린네만과 세르츠의 이야기에 더욱 감사한다. 아무리 강력한 기관, 주류 학자, 규범적인 사회적 관점이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여 있지 않다(딤후 2:9).

by Robert W. Yarbrough, TGC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60)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제10차 KWMC 대회를 돌아보며 (2)

난민선교 트랙은 도피자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 주제로 성경적 역사적 배경을 김대영 목사가 나누고, 실제 중동지역에서 쿠르드 난민들을 통해 많은 열매가 있음을 반** 선교사가 나누었다. 또한, 미주지역으로 보낸 아프카니스탄 난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지역 교회의 사례를 지용주 목사가, 아프카니스탄 선교사로 사역하다 나온 이축복 선교사가 미주 지역의 난민선교 사례를 들어 나누고, 아이티 난민을 통해 서부 아프리카 지역 선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순중 선교사가 나누었다. 난민선교 트랙에서는 “난민선교는 21세기 새로운 선교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전략이다. 따라서 교회들이 눈을 떠서 집중해야 할 선교의 최일선이다. 또한, 선교단체들과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가야 할 마지막 과업이기도 하다”고 결의하였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트랙에서는 한국에서 활발하게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주도하였다. 이는 한국의 실정이 얼마나 급속하게 다문화사회와 국가로 변모하였는가를 느낄 기회가 되었으며, 미주한인교회에서는 자신의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도전이 되었다. 한민족의 해외 이주 역사를 돌아보고 한국의 이민 정책과 이주민 선교에 대하여 정노화 목사의 강의와 평화의 복음이 교회에서 어떻게 다문화 다인종 이웃들과 평화롭게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는지 LA 한인메노나이트 교회 다민족교회를 이끄는 허현 목사가 나누었으며, 한국에 들어온 태국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지난 18년간 70명이 넘는 신학생을 배출하고 이들이 돌아가 태국

에 6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새생명비전교회연합교단을 설립한 홍광표 목사의 사례들을 나누었다. 또한, 윤윤경 선교사의 태국인 교회사역 사례와 평택의 이주민연합회 대표로 섬기는 이민기 목사의 나눔과 오윤교 회 이주민선교팀을 섬기는 이동철 집사의 사례발표, 위디 선교회 대표 문창선 목사의 이주민들 훈련을 통하여 이주민들에 대한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활발히 논의하였다. 이주민의 처지에서 시작한 한인교회와 다문화 가운데서 정체성을 지키고 이제는 대표적 기독교세력으로 성장한 미국의 다문화사회로 가는 길목에 선교회들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세계화 시대, 이주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주께서 불러 모으셔서 우리 곁으로 찾아온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열방의 제자장, 열방의 레위인으로 세워나가며 그들의 나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게 하는 역파송선교사역을 위해 총체적 연합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세계선교 완성에 헌신한다”고 결의하였다.

디아스포라 선교트랙에서는 디아스포라 사역에 앞장서는 씨드교회 권혁빈 목사의 디아스포라를 위한 단순하고 유기적이고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사례발표와 강의, 변화하는 이민 사회에 반하여 변화하지 않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오정호 선교사의 발제와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흐름과 유럽 디아스포라, 난민 사역의 개관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을 상호 호혜적 관점, 상황적 관점, 그리고 협력을 통해 타결해야 한다는 김성훈 선교사의 발제가 있었다. 로

잔 디아스포라 위원으로 섬기는 백운영 선교사는 북미 한인 교회가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복음의 탁월성과 접근성을 어떻게 글로벌하게 펼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나눴으며, 과테말라 SETECA 신학교 교수이며 코디네이터로 섬긴 최남용 선교사는 라틴아메리카의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여 새로운 선교의 시대에 하나님의 변두리의 화해자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 “디아스포라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의도적으로 흘러가게 하신 후 점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큰 선교의 방편임을 믿으며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동원하여 훈련하고 활용하며 지원하고 동역하며 힘을 실어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화해의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결의한다”고 발표하였다.

한인 선교역사가 길어지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선교사 멤버 케어의 필요성이다. 멤버 케어 트랙에서는 숭실사이버대학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전임교수인 이유경 교수가 선교 단체와 교회 선교사와의 멤버케어 협력에 대하여 발제하였고, CMF 설립대표인 김철민 목사가 가정 회복에 대한 발표와 비빌 언덕 사모의 집 대표인 김해한 선교사의 비빌 언덕 사모 축제에 대한 사례발표들이 있었다. 콤포넌트 교회의 설립 대표인 이필재 선교사의 멤버케어 사례발표와 성인 MK가 된 신상원 목사의 mKainos 성인 MK사역과 mKommit 장학사역에 대한 발표와 이선민 대표의 Mi Casa Tu Casa 사례발을 위해 선교관을 설립, 운영하

고 있는 김진남 장로의 사례발표와 선교사 훈련을 통한 멤버케어 발제로 GPTC 강병욱 선교사의 훈련사례발표, 유동윤 선교사의 엘리아 챌린지 사례발표가 있었다. 서울드림교회의 김여호수아 목사는 선교사들을 위한 리드잇 사례들을 발표하며 세계 각국의 선교사 대표들과 각 지역 리드잇의 필요에 대한 의견을 듣고 돕기로 하였다. 멤버 케어 트랙은 “멤버케어의 주체인 지역 교회, 파송단체, 전문멤버케어 단체, 그리고 선교사 자신이 함께 유기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다음 대회에서 선교사자녀교육과 은퇴에 관해서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결의하였다.

문화예술 트랙은 “최고의 예술가는 진리를 서술하는 사람이며, 따라서 예술은 복음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로잔 케이프타운 서약이 문화예술 선교의 토대임을 확인하고 이에 미주한인교회가 예술인들을 전문 선교사들로 양성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더 문화권 선교에 참여하기를 기도한다”고 결의하였다. 문화예술 선교 트랙에는 이민 사회 문화예술 사역자의 삶과 선교라는 제목의 발제를 한 조영석 목사, 재난지역 속의 문화 예술선교의 실제에 대한 보고를 The Bridge Ministry 대표인 공민 선교사가, M Contents Alliance 로 공유 확산되는 선교콘텐츠에 대해 이창진 선교사가 발제하였으며, 그리스 선교현장에서의 영화제작 사례를 통한 선교를 데이비드 박 선교사가 발표하였고, 미주 한인교회에서 God's Image 선교적 사례발표를 변용성 목사가, 파리 찬양 축제를 통한 문화예술선교 사례발표가 이유정 목사를 통해 발표되고, 한류의 영향력을 통한 선교 확보방안에 대해 피터 박 목사가 미주 한인교회의 문화예술선교에 대해 성보영 목사가 발표하였으며, 트랙의 코디네이터로 섬긴 베트남 다리놓는사람들 대표인 박종암 선교사의 문화예술 사역자로서 예배자로 살아내고 있는 현장 이야기가 나뉘었다.

미디어/온라인 선교트랙은 시대성을 잘 반영하여 주듯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을 활용한 선교에 대해 여호수

아 선교사 발제가 있었고, 디지털 제자 세우기에 대해 박성준 선교사의 발표, 이준호 선교사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처치 플랫폼 사례발표가 있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을 활용한 선교 사례를 박영방 선교사가 발표하였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선교사역에 대해 전생명 선교사, 다국어 영상 데빙 서비스 선교사역에 대하여 조원진 선교사가 발표하였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선교 사역에 대해 이규성 선교사, 심성식 선교사, 박영방 선교사들이 발표하고 열린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 시간에는 문화예술 트랙과 함께 조인트 세션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협력하는 장을 만들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온라인&미디어 시대로 심화시켜 가신다. 우리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모아, 디지털 선교라는 새로운 선교 환경에서 복음 전도를 위한 총체적인 협력과 동역으로 주님의 오시는 날을 앞당길 것이다”라고 결의하였다.

기술과 선교트랙은 ‘초고속으로 변하는 기술의 발달과 선교의 갭을 어떻게 메꾸며 대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해 묻고 답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AI,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청 교수가 강의하고, DNA editing, 인간수명 연장, 인터넷 혁명, 화폐 혁명 등의 이슈와 기독교에 대해 안 선교사가 발표하고, AI의 역할 및 한 기술들을 주한국 전도사가 소개하였다. 또한, 출애굽의 역사적, 지리학적, 고고학사가 발제하였으며, 그리스 선교현장에서의 영화제작 사례를 통한 선교를 데이비드 박 선교사가 발표하였고, 미주 한인교회에서 God's Image 선교적 사례발표를 변용성 목사가, 파리 찬양 축제를 통한 문화예술선교 사례발표가 이유정 목사를 통해 발표되고, 한류의 영향력을 통한 선교 확보방안에 대해 피터 박 목사가 미주 한인교회의 문화예술선교에 대해 성보영 목사가 발표하였으며, 트랙의 코디네이터로 섬긴 베트남 다리놓는사람들 대표인 박종암 선교사의 문화예술 사역자로서 예배자로 살아내고 있는 현장 이야기가 나뉘었다.

미디어/온라인 선교트랙은 시대성을 잘 반영하여 주듯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을 활용한 선교에 대해 여호수

라는 트랙을 만들게 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의도적으로 전문 사역가로서 선교를 하고 있는 장재중 장로를 코디네이터로 임명하고 비즈니스와 선교의 관계를 다양하게 바라보도록 요구하였다. 필리핀한인교포로서 해운물류와 IT 기업 유니 그룹을 창업 운영하는 장재중 장로는 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미국에서 IT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워주민 마을의 자립을 돕기 위해 기업을 창업한 GITXM의 대표인 김진수 장로는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지와 선교사의 자립에 대해 발제하였다. 워싱턴지역에서 활발하게 법률고문으로 일하는 박상근 변호사는 선교지 사업체와 관련법의 이해에 관하여 강의하였으며, 국제 CBMC 부이사장으로 섬기는 김솔로몬 장로는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자립 선교 방안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현장의 선교사들로서 상영규 선교사는 삼자원리의 역사와 선교현장 적용사례, 비즈니스, NGO, 교회 3개 기관의 유기적 관계로서 태국 불교사찰문화 연구를 통한 자립 선교 방안을 황진호 선교사가 발표하고, 네일로 그리는 내일! 네일아트를 통한 자립선교 사례들을 이창배 집사가 발표하였다. 페루의 황종태 선교사는 왕의 재생산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목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준성 선교사는 스몰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로서 라틴아메리카 사례를 발표하였다. 비즈니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선교사로 비즈니스를 시작한 전문 선교사들의 만남이어서인지 그들은 대회가 끝나자마자 조직을 만들고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비즈니스와 선교트랙에서는 “우리는 과거의 이원론적 사고를 지양하고 총체적 선교의 관점에서 ‘비즈니스와 선교는 그리스천 비즈니스맨과 선교사의 협업을 통해 복음전파를 효율적으로 감당하므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데 이바지한다. 그리고 우리는 ‘비즈니스 선교’가 성경적이며 한국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립선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다음에 계속)

dr.yongcho@gmail.com

C.S. 루이스와 문학적 성경읽기 (2)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C.S. 루이스는 자신이 지금 누리는 유명세나 영향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C.S. 루이스의 영향력은 엄청나다. 그의 책들이 매년 어머니마하게 팔리고 있고, 41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 등 수많은 명사가 그의 책을 읽고 회심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탁월한 문학 전도자였다. C.S. 루이스 생애 마지막 기간에 루이스의 비서 역할을 담당했던 월트 호퍼(Walter Hooper)는 흥미로운 일화를 들려준다. 루이스는 후퍼와 대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후 5년이 안 되어서 그는 곧 잊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퍼는 루이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반론을 제시하였었다. 후퍼의 반론은 루이스의 책은 잊혀지지 않을 것인데 이

유는 좋은 책이고, 동시에 대중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후퍼는 이 논쟁이 자신이 루이스와 벌인 논쟁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이 이긴 논쟁이라고 했다. 루이스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고 C.S. 루이스 사후에도 당분간 큰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다. (C.S. 루이스: 별난 천재, 마지못해 나선 예언자) 라는 책을 써서 루이스의 삶과 신앙 여정을 소개한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는 현존하는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이다. 그는 C.S. 루이스와 유사점이 있다. 둘 다 벨파스트에서 태어났고, 둘 다 무신론자였다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기독교를 발견했다.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자신의 저서(C.S. 루이스의 지적 세계)에서 루이스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다. 알리스터 맥그래스가 옥스포드에서 신학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루이스는 당시 영국 신학계에서 구식이며 신학적으로 유전한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래서 맥그래스 자신도 신학계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루이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맥그래스는 후일에 C.S. 루이스 작품들을 읽으며 루이스가 제시하는 기독교 진리와 그의 접근법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특히 루이스가 가진 지적이고 논리적인 화법이 매료되어 C.S. 루이스를 세밀하게 살피게 되었다. 이것은 맥그래스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은 루이스의 작품 시리즈를 연달아 출판하지만, 과거 복음주의 신학계는 한동안 루이스를 무시했다. 아니 루이스를 몰랐다. 자유주의와 근본주의가 치열하게 투쟁했던 시기에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C.S. 루이스 자신이 신학계를 따돌린 것이다. 루이스가 뒤늦게 관심을 받고 각광을 받는 이유도 루이스가 보수주의 신학 진영에도 자유주의신학 진영에도 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보수복음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니다. 루이스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그의 독특한 성경관(聖經觀) 때문이다. 루이스는 성경의 기사와 이적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로 믿는 점에서 보수주의 신학과 같은 기준을 갖는다. 아울러 루이스는 성경이 인간의 문학작품으로 인간의 약함으로 인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신학과 입장이 같다. 루이스는 성경을 영감 된 문학으로 보았다. 이것은 “들어 올림(Working up) 혹은 승화(Sublimation)”를 의미한다. 루이스는 인간의 작품인 문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므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The Bible carries the word of God).”라고 말한다. 아울러 루이스의 성경관은 올림과 상반되는 하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성육신의 수단으로 격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신적 영광을 버리는 낮아짐이기도 한 것처럼 성경에 있다는 것이다. 하늘의 신비한 진리를 이 땅의 언어로 전위(Transposition)가 이루어진다. 루이스는 신학자나 성도가 성경을 오독(誤讀)하는 이유가 신학적 전제 때문이라고 한다.

이점에서는 보수복음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같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이 역사성이 없는 신화들의 기록이라는 관점에서 읽고 보수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은 인간미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전제로 사로잡혀서 성경 고유의 멋과 맛을 느끼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 그들은 성경 본문을 신중하게 읽지 않아서 성경 본문 자체가 주는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고 탄식한다. 루이스의 성경관에 중요한 사항은 영감 된 문학적 성경을 영감 된 독자가 읽어 그 진리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루이스는 성경의 초월적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 “영감 된 독자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성경 영감론을 다룰 때 성경의 저술과 편집 과정의 영감에 초점을 맞추지만, 루이스는 한 걸음 더 나가 독자 차원의 영감 즉 영감 가득한 반응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루이스는 ‘성경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만, 아무에게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한다. 그는 ‘성경은 올바른 태도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는 “성경의 어조나 분위기에 젖어 들어 그 전체 메시지를 배우는 사람에게 성

경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영감 있게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상상력을 동원하여 성경을 읽고 전인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평생 글을 쓰고, 글을 읽고, 글을 비평해온 문학 평론가 루이스는 당연히 성경을 객관적인 문학 자료로 대했다. 문학 비평 전문가인 루이스는 동시대 작가의 문학 비평도 어렵고 논리적 비약과 허점투성이인 데 너무나 무모하게 성경을 비평하는 성경비평가들이 안타까웠다. 특히 신학적 전제에 사로잡힌 신학자들의 비평은 문학적 둔감함과 무지함이 가득한 비평이었다. 신학자들의 이런 비평에 학습된 목회자와 성도들의 성경 읽기도 루이스는 못마땅했다. 루이스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는 영감 된 문학으로 이해하고 문학으로 읽되 영감 된 독자의 태도로 읽으라고 권한다. 성경을 문학으로 대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마음에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영감 된 문학이므로 영감 된 독자가 되어 읽어야 그 진리를 알 수 있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yahoo.com

월 성막을 사모하는 자(시132:1-18) 찬 442장

다윗은 성막이 들어오는 일이 근심거리가 될 정도로 사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 것인데 그 사모심이 어땠는가요? 첫째, 서원했습니다. 성막을 발견하고 경배하기까지 잠을 설치 편히 쉴 수 없어 작정합니다. 사람들은 육적 소득에 골장 서원하기를 잘하는 반면 신자는 동방박사처럼 오직 하나님 앞의 예배에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둘째, 주님 한분 잘 모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다. 내 인생 왕좌에 주님이 좌정하시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아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등과 뿔이 되어주시고 능력과 복의 원천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사모한 것입니다. 완성된 성막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배웁시다.

화 성도 연합의 복(시133:1-3) 찬 605장

형제연합의 복을 말하는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복을 보여줍니다. 그 복은 어떤 것인가요? 첫째,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입니다. 복의 주권은 환경이나 인간이 아닌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기에 그분만이 복을 명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지혜자란 그분만이 복이심을 아는 데 있습니다. 둘째, 연합이 복 받는 조건입니다. 복을 받으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니다. 그래서 1절에는 그리스도 중심의 연합을 형제연합이라 했고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그 연합을 잘 지킬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영생이 복의 내용입니다. 영생과 하나님과는 별개가 아니고 그를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으로서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수 승축할 때 복이 온다(시134:1-3) 찬 456장

신자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첫째, 어디서 송축하는가요? 시온과 예루살렘의 집에서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을 송축하는 장소로 무엇보다 한나와 마리아의 영혼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 누가 송축하는가요? 예루살렘의 모든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암시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주된 일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입니다. 셋째, 어떻게 송축하며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송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향복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천상장로들과 같이 면류관을 던지며 찬양할 때 천지를 지으신 예루살렘에서 복을 주십니다.

목 여호와를 송축하라(시135:1-21) 찬 304장

찬양으로 시작하고 마친 본문은 여호와 찬양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째, 우리는 찬양을 위해 택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이라는 소속이 분명할 때 찬양이 나옵니다. 둘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며 섬리 주라고 말합니다. 5-6절에 천지 속에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삼라만상의 온

행을 직접 간섭하심을 보고 감사하라 합니다. 나를 향한 그의 자상한 간섭을 생각하면 할수록 위로가 되며 저절로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셋째,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신과 비교될 수 없는 독일무이하신 신이십니다. 바른 신관을 가질 때 바른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창조, 섬리,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금 하나님께 감사하라(시136:1-16) 찬 212장

성도는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오나요?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목상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모든 신의 신이요 주의 주가 되시며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둘째, 창조에서 보이신 그의 선과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땅 위에 물을 펴시고 큰 빛을 만드셨고 해로 낮을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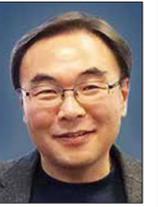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셋째, 구원 사건 속에 보여진 그의 선과 사랑을 음미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통과케 하시며 바로 군대를 엮으시며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요약됩니다. 감사가 절로 나와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깊이 생각합시다.

토 감사할 이유(시136:17-26) 찬 524장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과 감사의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원수를 멸하신 용사이신 하나님을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큰 왕을 치시고 유명한 왕들, 즉, 바산과 옥을 죽이신 하나님은 진정 용사이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기 업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의 기업이 예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의 지 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저 얻은 기업을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비천한 것에서 건져주심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비천의 자리와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완전한 해방을 안겨주셨습니다.

기독교교육 (53)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안식일과 주일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일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년 여의 팬데믹 기간 동안 주일을 지키는데 대한 생각과 주일을 지키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회에 걸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지켰던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에 비추어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글자 지우기, (34) 건물을 짓기, (35) 그것을 부수기, (36) 불 끄기, (37) 불 피우기, (38) 망치질하기, (39) 물건 옮기기.

구약성경에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출 16:23; 35:2, 3; 레 16:31; 민 15:32; 신 5:12; 왕하 4:23; 대상 9:32; 23:31; 대하 2:4, 8, 13; 23:4, 8; 31:3, 36:21; 느 9:14; 13:15-18; 시 92; 사 1:13; 58:13; 66:23; 렘 17:21, 22, 24, 27, 에 2:6; 겔 20:12, 24; 22:8, 26; 23:38; 44:24; 45:17; 46:1, 3, 4, 12; 호 2:11; 암 8:5 등). 신약에도 안식일이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마 12:15; 막 1:21; 눅 4:16; 행 13:14; 골 2:16 등).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의 완결판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출 20:8-11).

그 39가지 금지사항 중 (36)번째 "불을 끄지 말라"와 (37)번째 "불을 피우지 말라"는 출애굽기 35:3에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밭(Shabbat)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멈춘다,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걸맞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규율이 엄격합니다. 출애굽기 31:14-15,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옛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 칠 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운전을 못합니다. 운전하기 위해 시동을 걸면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므로 불을 피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도 못 탑니다. 층수를 표시하는 단추를 누르면 불이 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은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지 않고 층마다 자동으로 서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하여 39가지 금지사항을 만들었습니다(E Mishnah.com): (1) 씨 뿌리기(파종), (2) (밭) 갈기, (3) 추수하기, (4) 곡식단 묶기, (5) 타작하기, (6) 곡식 등을 까발기, (7) 추수한 것들이나 곡식들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 고르기, (8) (곡식 등을) 갈기, (9) 키질하기(까부르기), (10) 반죽하기, (11) 빵 굽기, (12) 양털 깎기, (13) 그것을 염색하기, (16) 실 잣기, (17) 천이나 옷감을 짜기, (18) (실로) 두 개의 고리 만들기, (19) 두 개의 실 엮기, (20) 두 개의 실 나누기, (21) 묶기, (22) 풀기, (23) 2쌍 바느질하기, (24) 2쌍을 꿰매기 위해 찢기, (25) 밧으로 사슴 잡기, (26) 그것을 도살하기, (27) 사슴의 가죽 벗기기, (28) 그것에 소금치기, (29) 그 가죽을 가공하기, (30) 그것을 반반하게 만들기, (31) 그것을 자르기, (32) 두 글자 쓰기, (33) 두 글자를 쓰기 위해

요리도 못합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피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음식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가스레인지를 은근한 불로 켜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동안 그 음식을 그 은근한 불에 데워 먹습니다.

냉장고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문을 열면 불이 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전구를 빼놓습니다. 요즘 새로 나오는 냉장고에는 Sabbath Mode(안식일 모드)라는 게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냉장고 안식일의 규정에 맞게 작동합니다.

셀폰도 못 씁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글자 이상을 쓰면 안 된다는 게 금지사항 (32)번인데 전화를 걸기 위해 숫자를 누르면 스크린에 숫자가 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의 노력이 가상하고도 우스꽝스럽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정말 다양한 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식일은 율법의 일부이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율법은 출애굽 할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유효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마5:17).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서 안식일은 특정한 민족과 특정한 기간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크리스천들이 율법과 안식일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화장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포드 예배당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리지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90.부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8가지 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부부가 싸울 때, 헛김에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무수한 비인격적인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구 날뛰는 배려없는 말들이 두 사람의 마음 간격을 수만리 떨어뜨려 놓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부관계의 인격 유지에 위해 <부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8가지 말>을 정리했습니다.

1. 우리 이혼해!

주례사를 듣고 엄숙하게 혼인서약을 한 부부에게 '이혼'이란 말을 꺼낸다는 것은 거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보통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향해 협박조로 이혼을 언급하지만, 그 말의 위협성이 떨어져 어느 순간 비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그 부부는 어느 틈엔가 이혼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2. 내가? 그러는 당신은 어떤 줄 알아?

부부싸움은 주로 반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왜 그런 식이냐?"고 공격하면, "내가 언제? 그러는 당신은 어떤 줄 알아?"라고 반격하는 식입니다. 때로 우리의 반격 대상은 특정 단어나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한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3. 옆집 남편처럼 할 수 없어?

비교를 하는 것은 배우자의 자존심을 긁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굳이 비교하거나 남편이 열등한 부분을 꼬집기 위해 던지려는 말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존심에 심한 타격을 입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더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그 자체만으로도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4. 어린애처럼 좀 굴지 마!

남편을 '큰아이'라고 표현하는 아내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남편들이 덩치나 키를 보면 들쭉해 보이도 모양만 어른인 어린아이라는 것이 그들의 푸념입니다. "그렇게 어린애같이 행동해?"라고 말한다면 항상 믿음직스러운 기풍이길 바라는 남편의 가슴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남편은 정말 아이처럼 사사건건 행여달라 하고 엉뚱한

입니다.

6. 당신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사람을 대할 때, 선입견을 드러내면 상대방에게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타인을 대할 때마다 퍼즐을 끼워 맞추듯이 그 사람의 유형을 분석하기를 즐깁니다. 퍼즐의 마지막 자리에 맞지 않

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과 상관없이 배우자는 항상 당신에게 비난의 화살 일부를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한 뒤 그 사안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8.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고집을 부려 에너지를 낭비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어린아이 남편을 토닥거리며 인정해 주고 존경합니다.

5. 당신, 예전이랑 똑같은 실수를 한 거잖아?

과거의 일을 들춰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내면 지름길로 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지금의 논쟁을 과거에 했던 논쟁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복잡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과거를 들추는 것은 일종의 옆길로 빠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마주친 문제를 해결할 시간도 부족한데 과거까지 전부 해결해야 한다면 완전히 나가떨어질 것

는 조카는 버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과 맞지 않을지라도 일단 생각해봅시다. 배우자의 실제 모습이 아닌 자기 마음속에 마음대로 그려놓은 그 사람의 이미지에 맞춰 선입견을 굳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모든 게 당신 잘못이야!

논쟁할 때 공평한 입장을 고수하고 싶다면, 잘못을 저질러 의견충돌이 일어나게 한 장본인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이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떠안은 사람은 누구이며, 이 문제에 있어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방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사람 모두 갈등에 대해 전적으

로 부부싸움을 할 때, 상대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상대에게서 잘못을 찾으려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 바로 누가 먼저 논쟁을 시작했는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반칙입니다. 언제 시작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신이 분노한 이유는 배우자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는 그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따지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배우자에게는 당신의 의견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모든 논쟁은 이처럼 출발하는 지점이 서로 다릅니다. 목표는 같은 결승지점에 들어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국

▲ 종족명 문바오 종족

▲ 인구 약 20,000명

▲ 종교 민속 종교 89.91%, 불교 10%, 복음화율 0.09%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복음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파일 야오족의 한 부류로 중국 동부에서 광둥성 북쪽으로 이주했고, 일부는 베트남과 라오스로 이동했다. 과거 사냥으로 유명한 종족이었으나, 지금은 주로 높은 산기슭 계단식 논 농사를 짓거나 화전으로 여러 작물을 재배한다. 도교, 정령숭배, 불교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을 무신론자로 여긴다.

▲ 기도제목

1.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도록
2. 문바오족 교회가 뜨거운 예배와 기도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고 문바오족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3. 성경이 번역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7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3페이지 (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마감은 2024년 10월 31일(오후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심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도서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테데우스 윌리엄스, 두란노



어쩌다 거룩하게 나디아 볼즈웨이버, 윤종석역



일상의 유혹 손성안, 토기경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최상훈, 규경



시대를 읽다 성경을 읽다 박영로, 복있는사람



생명언어로 가는 입술의 성화 이민미, 시시물



특별한 빛을 보내오는 사람들 김기석, 도서출판 KMC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천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도서구입처 미주내 기독교 서점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임승래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빛나는 올림픽 금메달

2024 제33회 하계 올림픽이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에펠탑, 센강 중심으로 펼쳐진 개회식은 장관이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경도 많았지만, '셀린 디옹'(Celine Dion)이 부른 "사랑의 찬가"는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노래를 잘해서라기보다, 불치병을 딛고 힘차게 노래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그녀는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디바였지만, '전신근육 감작인간증후군'이라는 희소병을 앓으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올림픽 개회식 피날레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상상도 못 했던 인생의 풍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고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가 관건입니다. 가로막힌 걸림돌 앞에서 주저앉고 말 것인가? 아니면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무기력증에 빠져, 환경만 탓하고 사람만 원망한다면 아무런 해결책을 얻지 못합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 박사는 IQ(지능지수)나 EQ(감성지수)보다 AQ(역경지수, Adversity Quotient)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올 때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인생의 자량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는 희망으로 역경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넘어졌을 때 어쩔 수 없다고 닳더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 잡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모세, 다윗, 엘리야, 요나, 베드로, 마가,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자랑스러운 메달을 목에 건 훌륭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고의 금메달 선수가 있습니다. 에펠탑 위의 무대에서 뜨겁게 열창했던 '셀린 디옹'입니다. 인생의 역경을 딛고 다시 노래하는 그녀 자체가 빛나는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잠언 24:16)

bible66@gmail.com

뮤지컬 도산 연출 추정화 감독

“전체적인 공연의 흐름은 크게 바뀐 것은 없지만 극의 흐름이 지난 시즌 때보다 스피디하게 전개되고 구성이 보다 탄탄해 질 것”

지난 2019년 3월3일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로마리나대학교 강당에서 초연을 한 뒤 매 시즌마다 큰 반향을 일으켰던 뮤지컬 도산, 무대예술인 그룹 시선(대표 클라라 신)의 뮤지컬 도산 시즌4가 오는 11월19일과 20일 이벨극장에서 공연된다. 이번 공연을 위해 총연출을 맡은 추정화 감독을 만나보았다.

한국에서 명성황후에 출연하는 등 연극배우로 활동하다 연출자가 되어 10여년간 활동한 추정화 감독은 우연한 기회에 뮤지컬 도산을 만나게 되고 총연출을 맡게 됐다.

“지난 시즌 도산 안창호 선생님 역할을 맡았던 백승렬 씨가 좋은 작품이 있으니 연출을 맡아보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침 서울에 방문 중이었던 조셉 윤 작곡가님과 클라라 신 대표님과 미팅을 갖은 뒤 연출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들려준다.

한국에서 주로 창작극을 만들어서 무대에 올렸던 추 감독은 뮤지컬 도산의 감독을 맡기로 한 것은 뮤지컬에 사용되었던 음악에 매료된 것, 그리고 한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작품을 준비 중인 스태프와 배우들의 모습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미국 LA를 바라볼 땐 많이 앞서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도시이기에 뭐든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한인커뮤니티로 좁혀서 생각하면 많이 열악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작품하나를 하더라도 오디션을 통해 배역이 정해지는 반면, 한인사회에서는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순수 아마추어 분들이라 브로드웨이 수준의 작품을 기



뮤지컬 도산 추정화 감독(사진 왼쪽)과 김병진 안무감독

대하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비록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지만 전문 배우 못지않은 열정과 진지함은 한인 사회에서의 연극공연의 비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추 감독은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었다. 다만 한국의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 안중근, 윤봉길에 비해 안창호에 대해서는 덜 알려져 있다”며 “도산 선생님이 대한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의 특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추 감독은 “몇몇 장면이 새로 삽입이 되는 것 외에 전체적인 공연의 흐름은 크게 바뀐 것은 없지만 극의 흐름이 지난 시즌 때보다 스피디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과 구성이 보다 탄탄

해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작품의 구성 면에서 보다 탄탄해짐을 느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시즌까지 어떻게 공연을 했는지 영상자료를 본 적 없거든요. 많이 준비했고 수고도 많이 했음을 잊을 수 있었어요. 처음 뮤지컬을 만든 것이라고 보기에 너무 훌륭하게 작품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쉬움도 많았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연출자가 없이 작품을 준비하다보니 실제 무대 위에서 전달되는 것이 준비한 만큼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병진 안무감독이 배우들의 동작 하나하나 손을 대서 완성도를 높였고,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왔을 때 한인인민자들은 신세계를 접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백인여성 배역을 맡은 분들은 모두 하이힐을 신고 등장하게

했습니다.”라며 “무대에서의 동선을 비롯한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클라라 신 대표는 “뮤지컬 도산 공연을 하면서 박수도 많이 받고 칭찬과 격려도 많이 받아서 감사했다. 하지만 너무 교육 쪽으로 치우쳤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뮤지컬 도산 공연이 시작된 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추정화 감독님을 영입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추 감독 역시 “도산을 생각하면 독립운동을 교육 쪽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도산의 과거 그리고 독립운동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것으로 극이 전개될 것이라 너무 다큐멘터리적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뮤지컬 도산 공연 이후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할 기회가 되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추정화 감독은 “좀 더 글로벌한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다”며 “이곳은 미국이라 한인들과 함께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 LA의 모든 사람들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간 열리는 이번 공연은 도산 안창호, 안혜련 여사, 유관순 열사, 도산 선생님의 자녀들이 더블캐스팅되며, 지난 시즌과 변화된 구성이 필요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이번 뮤지컬 도산 공연의 묘미가 될 것이다. 자세한 것은 (213)500-5824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아, 비가 온데요”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이 예보를 듣는 순간, 저 자신도 모르

게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 하는 가사가 담긴 찬송이 저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이 찬송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만큼 가뭄이 오래 계속되고 있어서 정원에 심겨진 각종 화초들도, 그리고 작은 채마밭에 심겨있는 갖가지 채소들도 제가 뿌려주는 물을 머금어가며 힘겹게 견디어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봅니다. '모든 만

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존재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반가운 것은 꽃밭에 물을 주는 것이 힘이 들어서도 아니고, 물 값이 많이 나오셔도 아닙니다.

비가 오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비는 오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활동을 불편하게 하지만 그래도 비는 와야만 합니다.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물을 줘도 시들시들

하고 생각이 없던 잔디며 채마밭의 각종 채소들이며 정원의 정월수들과 화초들이 비에 반응하는 모습은 얼마나 생생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보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야 최고!”라고 반응하곤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들으며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라는 찬송이 저의 입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롬 11:36).”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 형, C 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 Q28, Q13 버스정류장 앞



Joon Mo Myung, M.D.
 - NY Hospital of Queens 일반내과/위장내과 Faculty
 - Ohio 종합병원 다년간 경원 봉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위장내과 전문의 수료
 - Baylor College of Medicine 일반내과 전문의 수료
 - New York University 임상연구